

# 제4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04

“한국인의 기부지수 발표 및 선진적인 모금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- 윤리적이고 효율적인 모금”  
The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Giving Culture "Giving Korea 2004"



National Survey on Giving in Korea and  
Delivering Ethics and Efficiency in Fundraising

GIVING KOREA 2004

# GIVING INDEX

2004년도 한국인의 기부지수 조사 결과

【 2004. 06. ~ 07. 】



# 목 차

## 제 1 장. 조사개요

1. 조사의 목적 .....	1
2. 조사의 설계 및 진행 .....	1
3. 표본추출방법 .....	2
4. 응답자 특성표 .....	3

## 제 2 장. 조사결과 요약 .....

6

## 제 3 장. 조사결과 분석

1. 2003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.....	7
1-1. 2003년 자원봉사활동 장소 .....	8
1-2. 2003년 자원봉사활동 장소 인지 경로 .....	10
1-3. 2003년 자원봉사활동 정기성 여부 .....	12
1-4. 2003년 자원봉사활동 시간 .....	13
1-5. 2003년 종교기관 봉사활동 참여율 및 참여시간 .....	16
2. 2003년 기부 참여 여부 .....	17
2-1. 2003년 기부처 .....	18
2-2. 2003년 기부처 인지 경로 .....	20
2-3. 2003년 기부 방법 .....	21
2-4. 2003년 기부 정기성 여부 .....	22
2-5. 2003년 기부 금액 .....	23
2-6. 2003년 종교기관 기부 참여율 및 기부 금액 .....	28
3. 기부의 이유 .....	29
4. 기부금의 세금공제 혜택 인지 여부 및 이용 여부 .....	30

5. 기부금의 기부처 운영 및 행정 비용 적정 범위 .....	32
6. 기부하지 않은 이유(비기부자 한정) .....	34
7. 향후 1년 내 기부 의향(비기부자 한정) .....	36
8. 기부참여 결정 시 고려사항 .....	37
9. 자선/모금기관 기부 시 고려사항 .....	39
10. 기부금 사용 희망 분야 .....	40
11. 성장기 경험 .....	42
12. 시설/기관/단체별 신뢰도 .....	43
13. 2003년 배우자 자원봉사활동 시간 .....	44
14. 2003년 배우자 기부 금액 .....	46

## ▣ [부록] 조사 설문지

## 1. 조사의 목적

2003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 및 자원봉사 실태와 이에 대한 인식·태도를 파악하여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, 향후 기부활동 관련 정책방안 모색 시 기초자료로 활용

## 2. 조사의 설계 및 진행

조사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국(제주 제외) 만20세 이상 성인남녀</li> </ul>
표본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1,011명</li> </ul>
표본오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95% 신뢰수준에서 <math>\pm 3.08\%</math>포인트</li> </ul>
조사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면접조사(<i>face-to-face interview</i>)</li> </ul>
표본추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1단계 : 다단계 지역추출법 - 조사지점 선정</li> <li>■ 2단계 : 할당표본추출법 - 응답자 선정</li> <li>☞ '3절. 표본추출방법'에서 별도 설명</li> </ul>
조사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2004년 6월 17일(목) ~ 7월 3일(토)</li> </ul>
조사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주)리서치 앤 리서치(R&amp;R; 대표 노규형)</li> </ul>

### 3. 표본추출방법

#### 1단계 : 다단계 지역표본추출법(multi-stage area sampling)

■ 지역별 층화

- 전국을 7개 광역시와 8개 도(제주도 제외)로 나누고, 도는 다시 시, 읍, 면으로 층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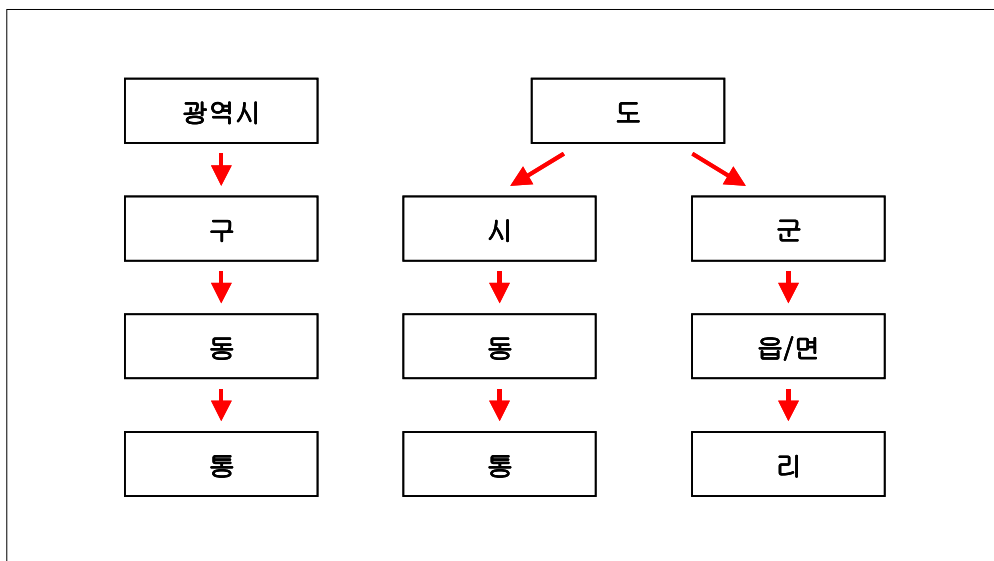
■ 인구수 비례 할당

- 층화된 지역별 인구수를 감안, 지역 당 조사지점(sampling point)의 수 계산(조사지점당 10명 조사 원칙).

■ 다단계 지역표본추출

-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조사지점인 통/리를 무작위로 선정

☞ 이러한 과정은 R&R Sampler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짐



#### 2단계 : 할당표본추출법(quota sampling)

- 최종 응답자는 조사지점에서 성별·연령대별 인구비례 층화할당을 통해 선정.

## 4. 응답자 특성표

		사례수	%
전 체		1,011	100.0%
성 별	남 자	498	49.3%
	여 자	513	50.7%
연 령	2 0 대	233	23.1%
	3 0 대	255	25.2%
	4 0 대	227	22.5%
	5 0 대 이 상	296	29.2%
학 력	중 졸 이 하	223	22.1%
	고 졸	448	44.3%
	대 재 이 상	340	33.6%
직 업	농 / 임 / 어 업	79	7.8%
	자 영 업	115	11.4%
	블 루 칼 라	181	17.9%
	화 이 트 칼 라	192	19.0%
	주 부	274	27.1%
	학 생	98	9.7%
	무 직 / 기 타	72	7.1%
거 주 지	서 울	224	22.1%
	인 천 / 경 기	254	25.1%
	부산/울산/경남	169	16.8%
	대 구 / 경 북	114	11.2%
	광 주 / 전 라	115	11.3%
	대 전 / 충 청	102	10.1%
	강 원	34	3.3%
거주지규모	대 도 시	487	48.2%
	중 소 도 시	387	38.3%
	군 지 역	137	13.5%

< 계 속 >



		사례수	%
전 체		1,011	100.0%
결혼상태	미 혼	300	29.7%
	기 혼	626	61.9%
	이 혼 / 사 별	85	8.4%
종 교	불 교	245	24.2%
	기 독 교	220	21.7%
	천 주 교	87	8.6%
	없 음	460	45.5%
개인소득	49 만 원 이하	451	44.6%
	50 ~ 99 만 원	90	8.9%
	100~199 만 원	246	24.3%
	200 만 원 이상	223	22.1%
가구소득	99 만 원 이하	97	9.6%
	100~199 만 원	260	25.7%
	200~299 만 원	334	33.0%
	300 만 원 이상	316	31.2%
	모름 / 무 응답	4	0.4%
거주형태	자 가	694	68.6%
	전 세	240	23.8%
	월 세 / 기 타	77	7.6%
가구원수	1 명	157	15.5%
	2 명	194	19.2%
	3 명	211	20.9%
	4 명	314	31.1%
	5 명 이 상	135	13.4%



## 조사결과 요약

### ■ 2003년 기부

- ▶ 기부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64.3%로 전체의 3분의 2 가까이 나타남. 이는 2000년(57.0%), 2001년(48.0%)보다 상승한 수치임.
- ▶ 국민 1인당 종교기부를 제외한 기부 금액(물품포함)은 평균 57,859원으로 2001년(51,775원)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- ▶ 기부한 사람에 한정할 경우, '개인별' 기부 금액은 90,101원으로 나타나, 2001년(각각 89,780원, 108,110원)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.
- ▶ 한편, 기부자의 세금공제 혜택 인지도는 43.3%에 그쳤고, 인지자 중 세금공제 혜택을 이용한 경우는 15.0%에 불과하여, 세금공제 혜택을 활용하고 있지 않음을 인식할 수 있음.

### ■ 2003년 자원봉사활동

- ▶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6.8%로 2000년(17.7%), 2001년(16.0%)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.
- ▶ 국민 1인당 자원봉사활동 시간(종교 자원봉사 제외)은 7.38시간으로 2001년의 5.81시간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를 보임.
- ▶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들에 한정하면, '개인별' 자원봉사활동(종교 자원봉사 제외) 평균 시간은 44.7시간이었음. 이는 2001년(건수별: 31.2시간, 개인별: 36.2시간)보다 다소 증가한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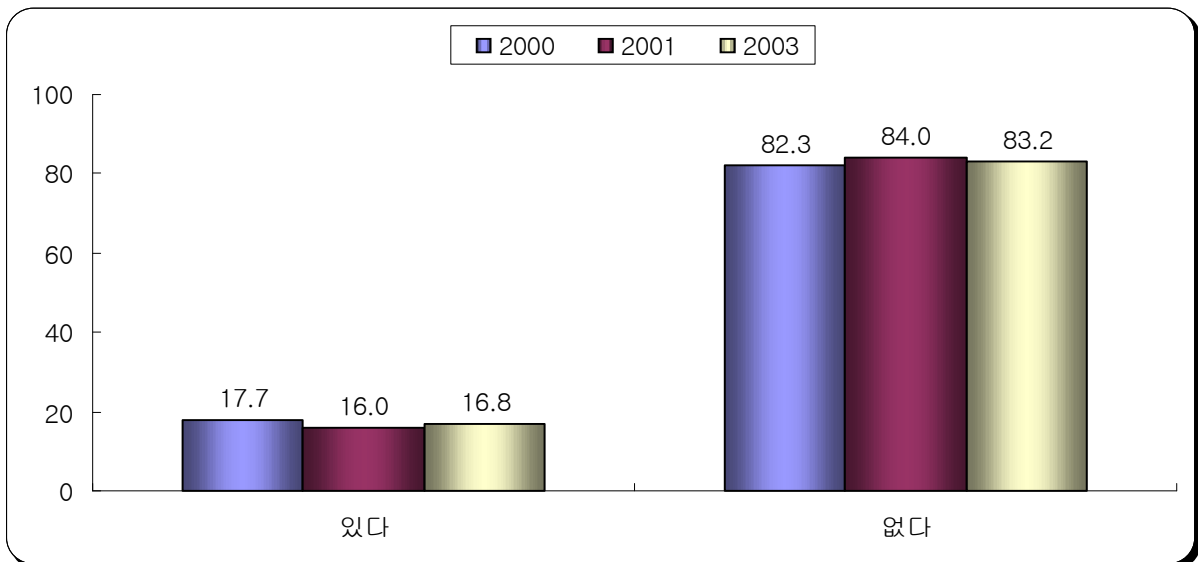
## 조사결과 분석

### 1. 2003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

문) 귀하는 작년 한 해 즉 2003년 1월부터 12월 사이 [보기카드 1과 같은 곳에서] '자원봉사활동'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?

◎ 2003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'(참여한 적이) 있다'가 16.8%로 나타남.

- 2000년 17.7%, 2001년 16.0%, 2003년 16.8%로 연도별 증감이 거의 없음.



### 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'(참여한 적이) 있다'는 응답은 40대(21.4%), 학생(28.7%), 대구/경북 거주자(27.6%), 중소도시 거주자(21.4%), 기독교(23.2%) 및 천주교(33.1%) 신자, 개인소득 49만원이하(20.2%), 가구소득 100만원대(20.8%) 및 300만원이상(21.1%), 거주형태 자가(18.7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▷ '없다'는 응답은 블루칼라(90.1%), 서울 거주자(89.0%), 대도시 거주자(86.4%), 결혼상태 이혼/사별(98.1%), 무신론자(89.6%), 가구소득 99만원이하(94.1%) 및 200만원대(87.4%), 거주형태 전세(88.9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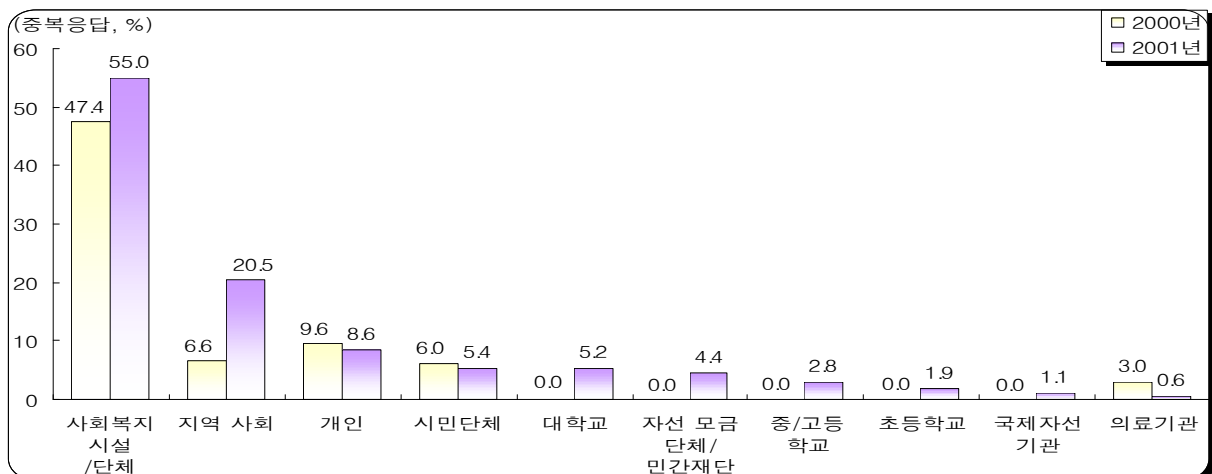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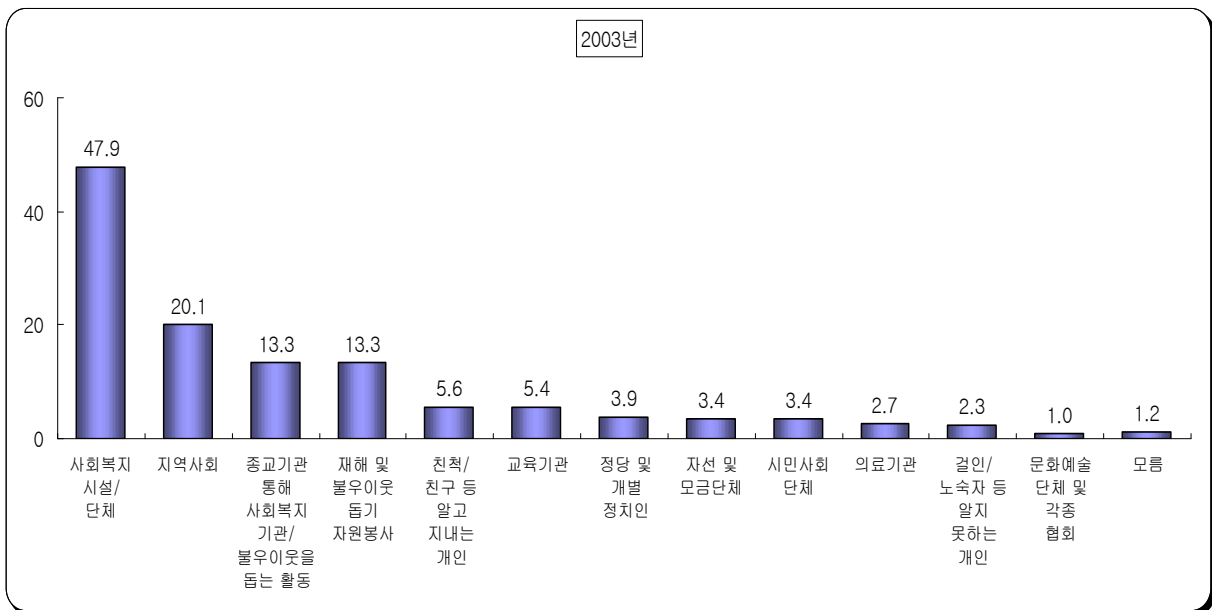
## 1-1. 2003년 자원봉사활동 장소

문)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(2003년 1월~12월) ‘자원봉사활동’을 한 시설/기관/단체/개인을 [보기카드 1에서 찾아] 모두 말씀해주십시오.

◎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 응답자 170명의 자원봉사활동 장소로는 ‘사회복지 시설/ 단체’(47.9%)가 가장 높았고, ‘지역사회’(20.1%)가 두 번째로 높았음(중복응답; n=170).

- 한편, ‘사회복지 시설/ 단체’는 2000년(47.4%)과 2001년(55.0%)에도 가장 높은 자원봉사 장소로 나타난 바 있음.

☞ [참고] 본조사의 설문은 회의를 통해 2002년 조사의 설문에서 다소 수정되었음. 이와 같이 수정된 설문항은 기존조사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고 판단되어, 그래프를 제시할 때 본조사 결과와 기존조사 결과를 각각 분리하여 제시함. 이는 본 문항을 포함하여, 모든 문항에 적용됨.


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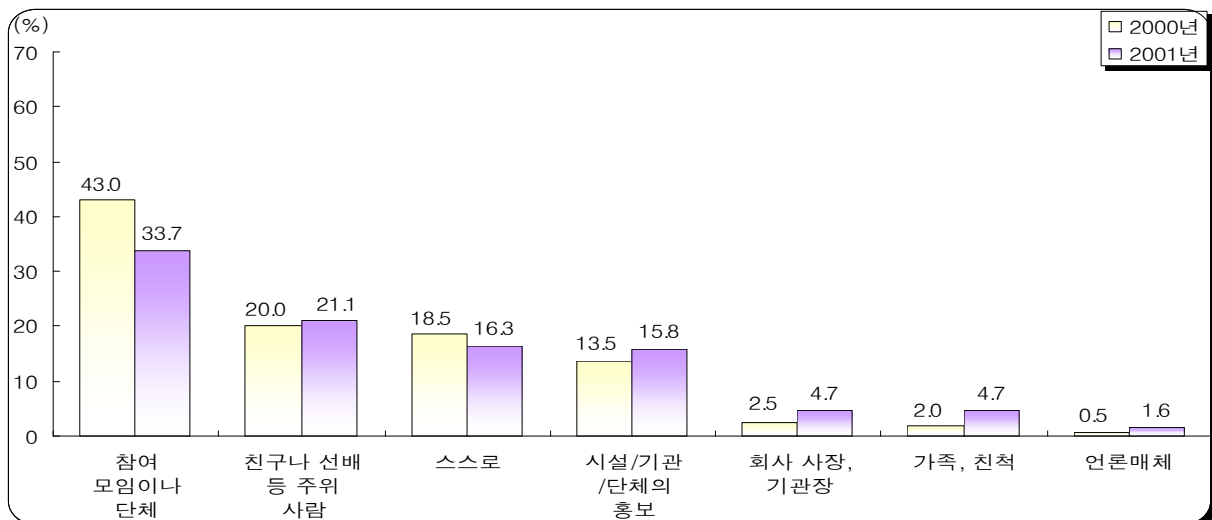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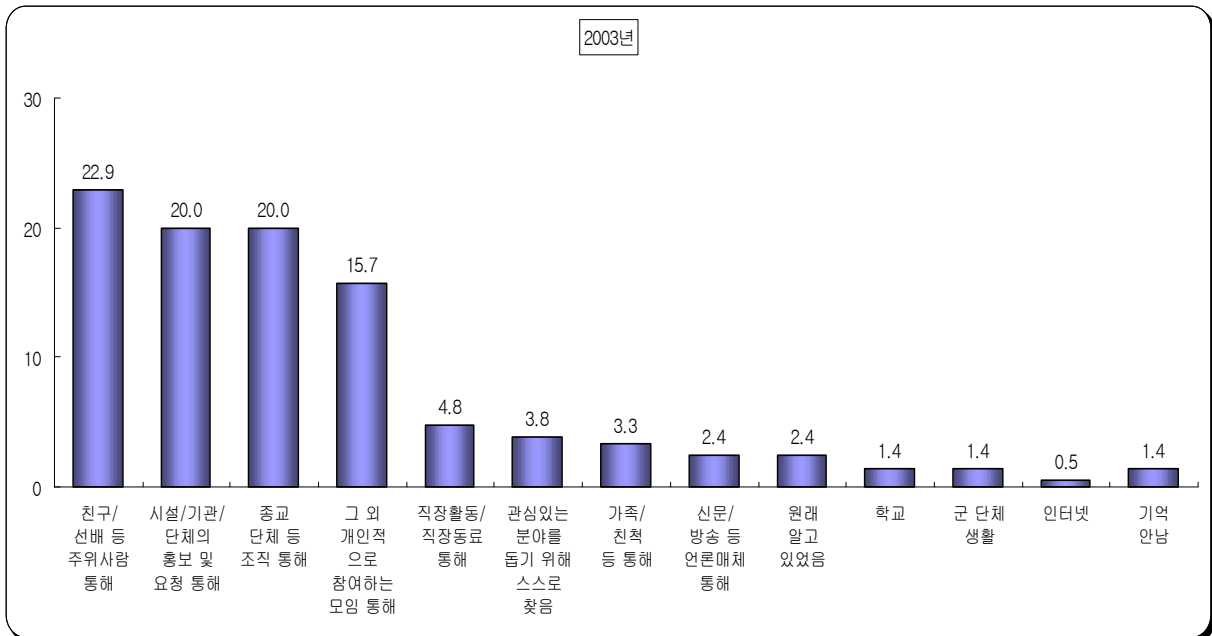
- ▷ '사회복지 시설/단체'는 20대(68.2%), 학생(75.1%), 미혼자(69.2%), 기독교 신자(63.2%), 가구소득 100만원대(60.0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  
- ▷ '지역사회'는 40대(33.2%), 고졸 학력층(30.0%), 기혼자(27.9%), 불교신자(38.5%), 가구소득 99만원이하(56.4%) 및 200만원대(38.4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
## 1-2. 2003년 자원봉사활동 장소 인지 경로

문) 그 '시설/기관/단체/개인'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? 다음 중 해당하는 번호를 각각 하나씩만 말씀해주시요.

- ◎ 자원봉사활동 장소를 알게 된 경로로는 '친구나 선배 등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'가 22.9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'시설/기관/단체의 홍보 및 요청을 통해서'(20.0%), '종교단체 등의 조직을 통해서'(20.0%) 등이 뒤를 이음 (response base; n=210).

☞ [참고] response base란 모르겠다, 무응답 등을 제외하고, 응답이 나온 총 항목 수를 기준(분모)으로 하여 각각의 응답(분자)들을 나누어 계산함. 본 문항에서 응답 나온 총 항목 수는 210개임.


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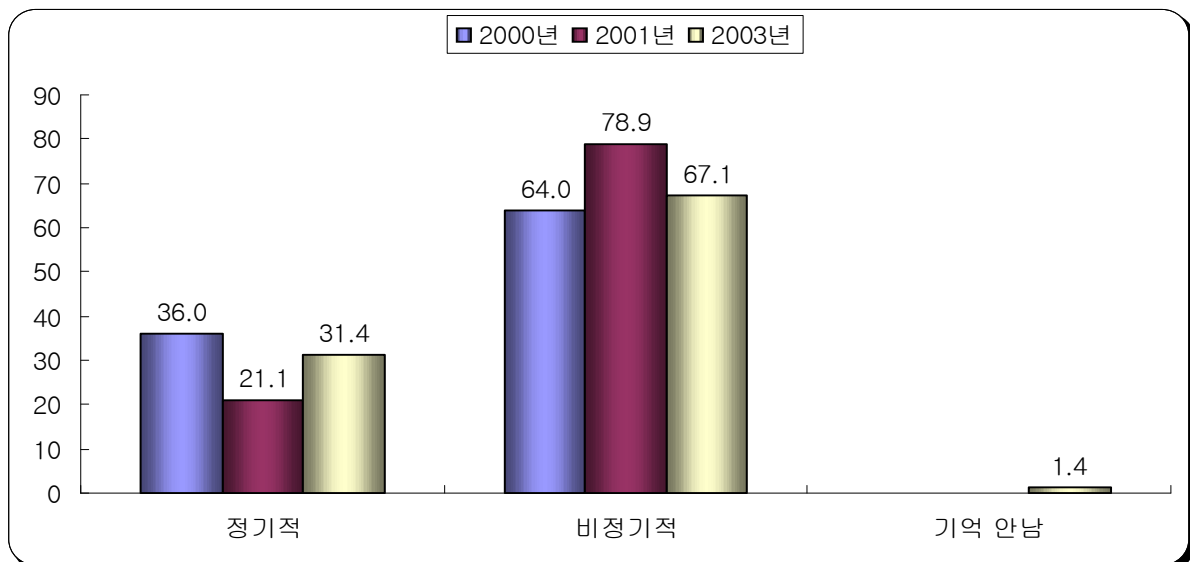
- ▷ '친구나 선배 등 주위사람을 통해서'라는 응답은 20대(37.2%), 미혼자(36.5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
## 1-3. 2003년 자원봉사활동 정기성 여부

문) 그 시설/기관/단체/개인에 대한 ‘자원봉사활동’은 정기적으로 하신 것입니까?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하신 것입니까?

◎ 자원봉사활동의 정기성 여부를 묻은 결과, ‘정기적’이 31.4%로 나타남 (response base; n=210).

- 본 조사의 정기적 봉사 비율(31.4%)이 2001년 조사(21.1%)보다 10.3%포인트 높게 나타남.



### 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▷ ‘정기적’이라는 응답은 50대이상 연령층(40.9%), 대도시 거주자(45.6%), 개인소득 200만원이상(47.7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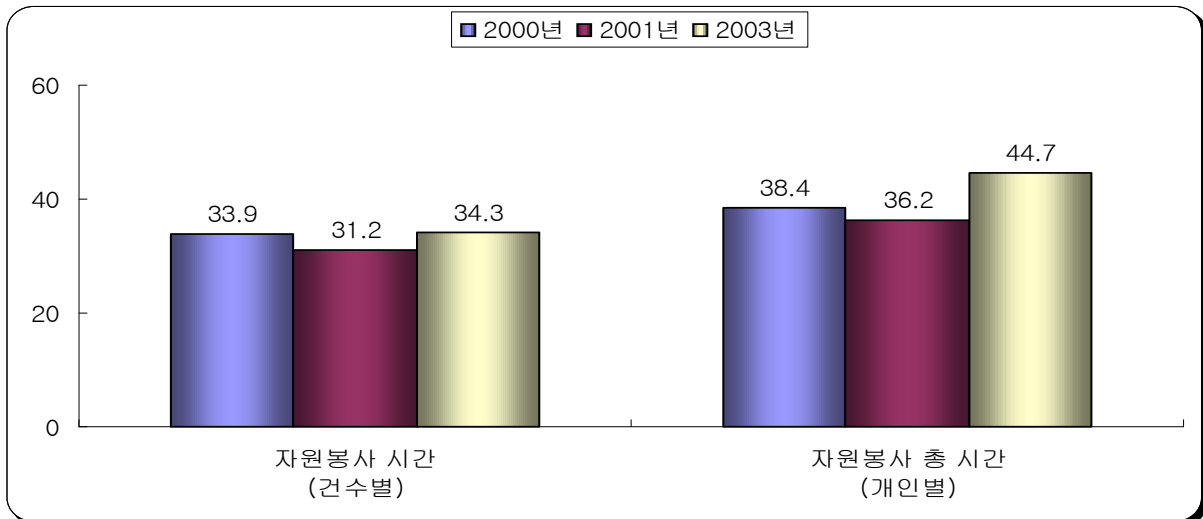
▷ ‘비정기적’이라는 응답은 학생(87.1%), 중소도시 거주자(79.2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

## 1-4. 2003년 자원봉사활동 시간

문) 작년 한 해 동안(2003년 1월~12월) 그 시설/기관/단체/개인에게 ‘자원봉사활동’을 한 시간은 모두 몇 시간이나 되십니까?

- ◎ 참여자에 한정할 경우, ‘자원봉사활동 건수별’ 평균시간은 “34.3시간”으로 2001년(31.2시간)보다 9.9% 증가하였고, ‘개인별 자원봉사활동’ 평균시간은 “44.7시간”으로 2001년(36.2시간)보다 23.5% 증가하였음.
- 국민 1인당 자원봉사활동 평균시간(종교자원봉사제제외)은 “7.38시간”으로 분석됨(2001년 : “5.81시간”). 종교자원봉사를 포함하면 연 평균 8.12시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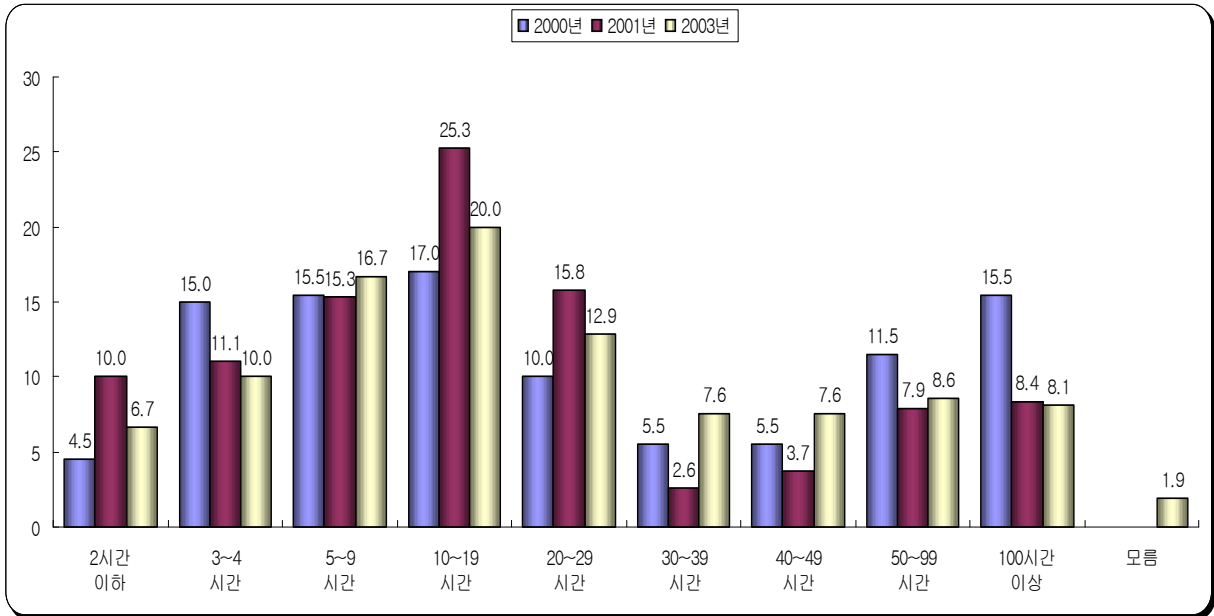


<그림> 자원봉사활동 평균시간

### 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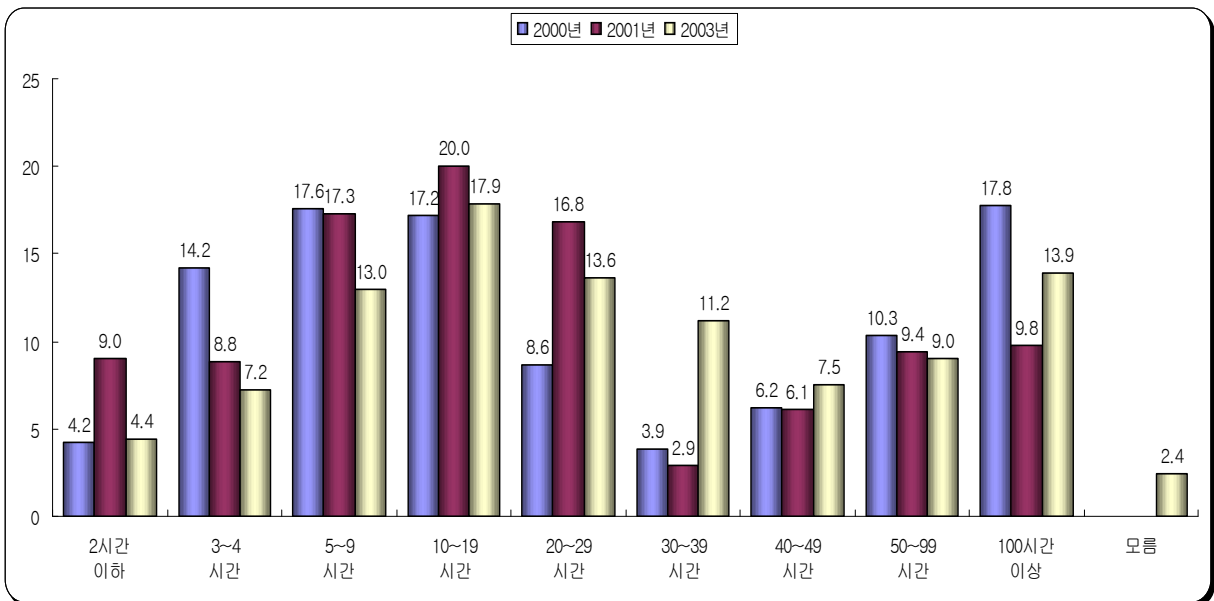
- ▷ ‘개인별’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30대(64.3시간), 중졸이하 학력층(65.4시간), 서울 거주자(64.5시간), 대도시 거주자(55.6시간), 결혼상태 기혼자(50.0시간)임.

- ◎ 한편, 건수별로는 '10~19시간'이 20.0%로 가장 높았고, '5~9시간'이 16.7%로 두 번째로 높았음.



<그림> 자원봉사활동 시간(건수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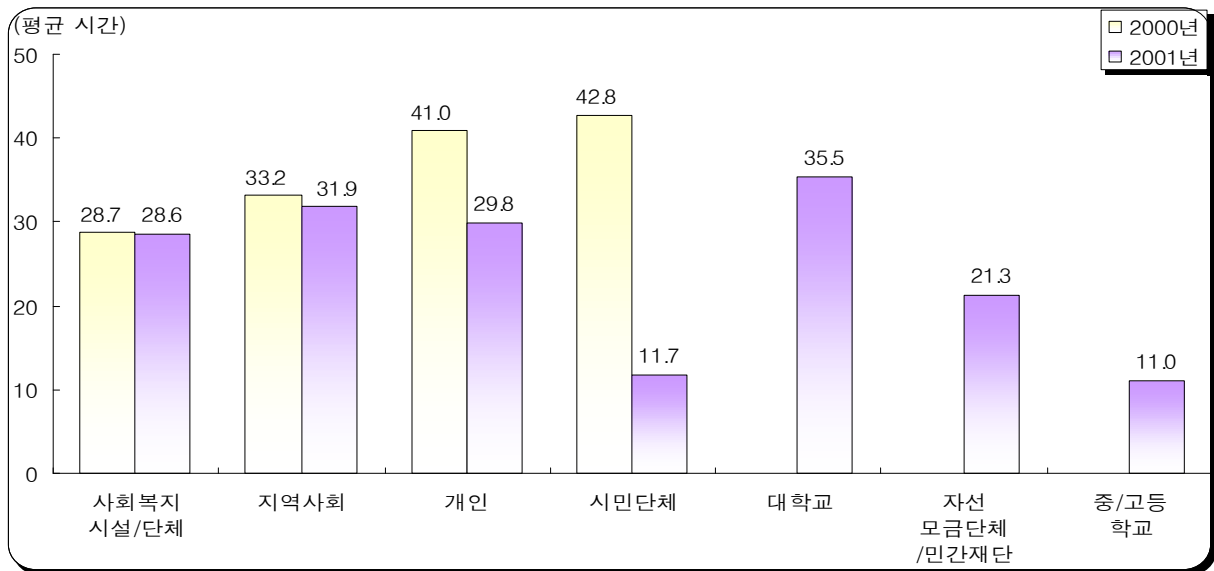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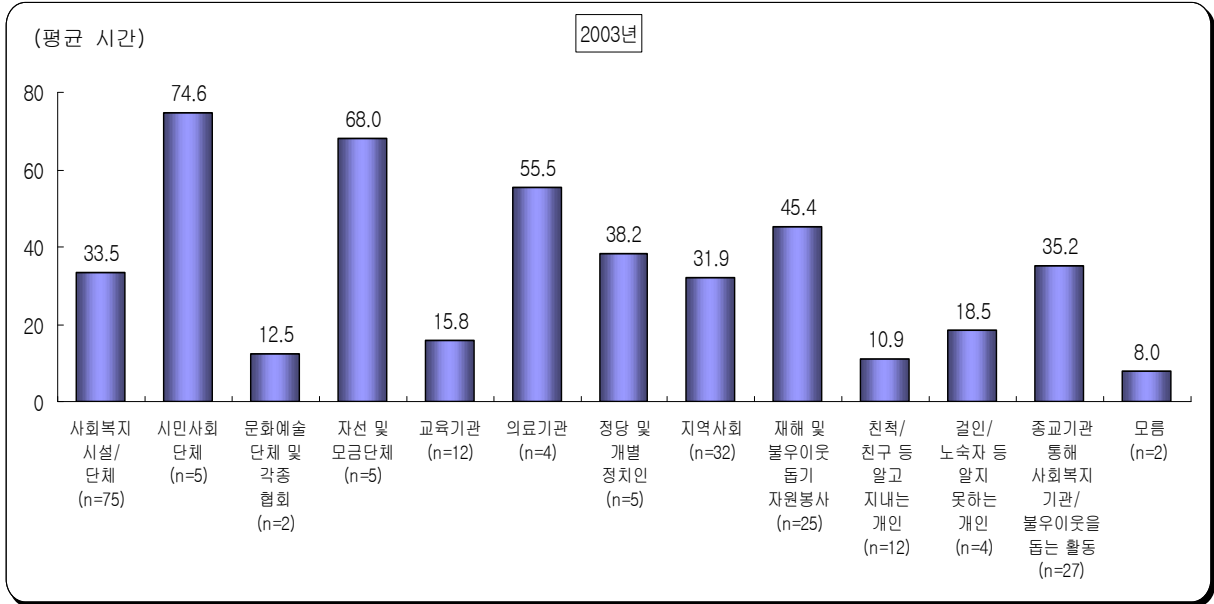
- ◎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개인별 평균시간을 살펴보면, '10~19시간'이 17.9%로 가장 높았고, 이어서 '100시간 이상'(13.9%), '20~29시간'(13.6%), '10~19시간'(17.9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

<그림> 자원봉사활동 시간(개인별)

◎ 자원봉사처별로 살펴보면, '사회복지 시설/ 단체'(n=75) 33.5시간, '지역사회'(n=32) 31.9시간, '재해 및 불우이웃돕기 자원봉사'(n=25) 45.4시간, '종교기관을 통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을 돕는 활동'(n=27) 35.2시간 등으로 나타남.

- 여타 봉사처의 경우 표본수가 10미만으로 상당히 적어,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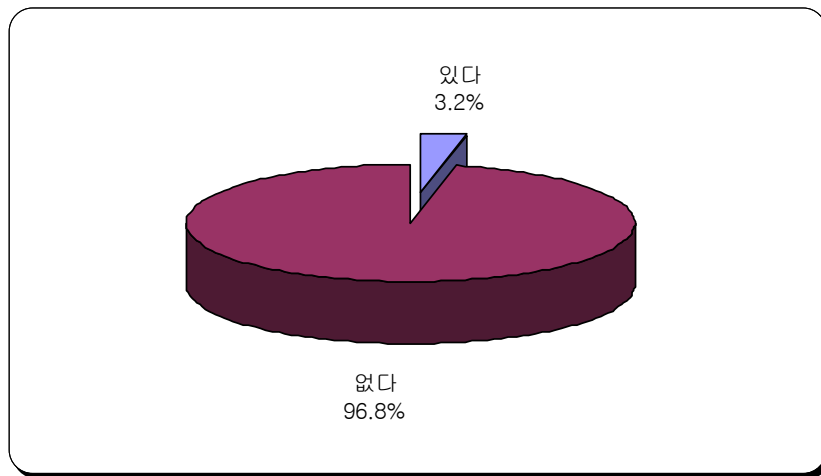


<그림> 자원봉사처별 활동시간

## 1-5. 2003년 종교기관 봉사활동 참여율 및 참여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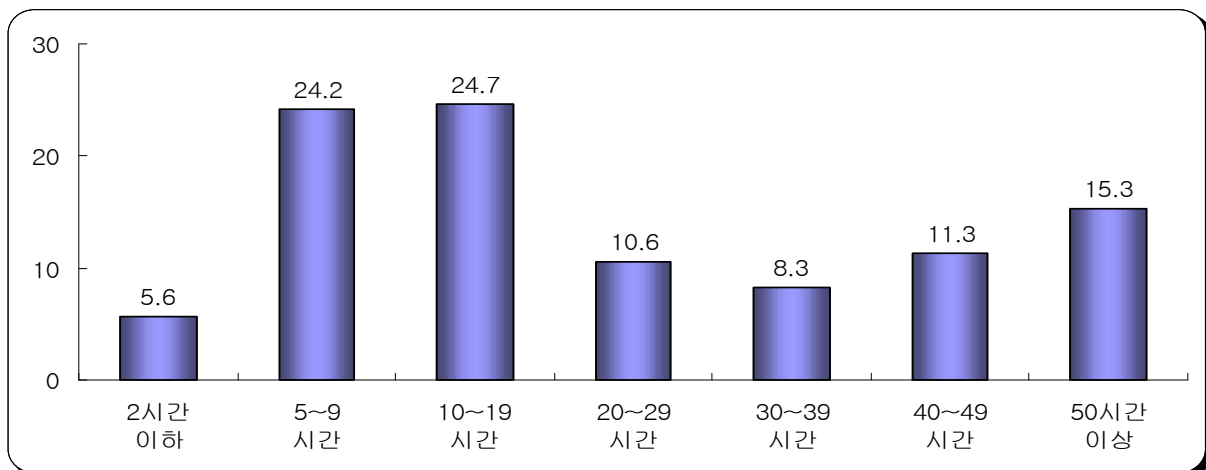
문) 작년 한 해 동안(2003년 1월~12월) 그 시설/기관/단체/개인에게 '자원봉사활동'을 한 시간은 모두 몇 시간이나 되십니까?

- ◎ 2003년에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을 한 적이 '있다'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1,011명 중 3.2%로 나타남.



<그림> 종교기관 봉사활동 참여율

- ◎ 종교단체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는 33명에 한정하여 참여시간을 살펴보면, '10~19시간'(24.7%)과 '5~9시간'(24.2%)이 높게 나타남(n=33)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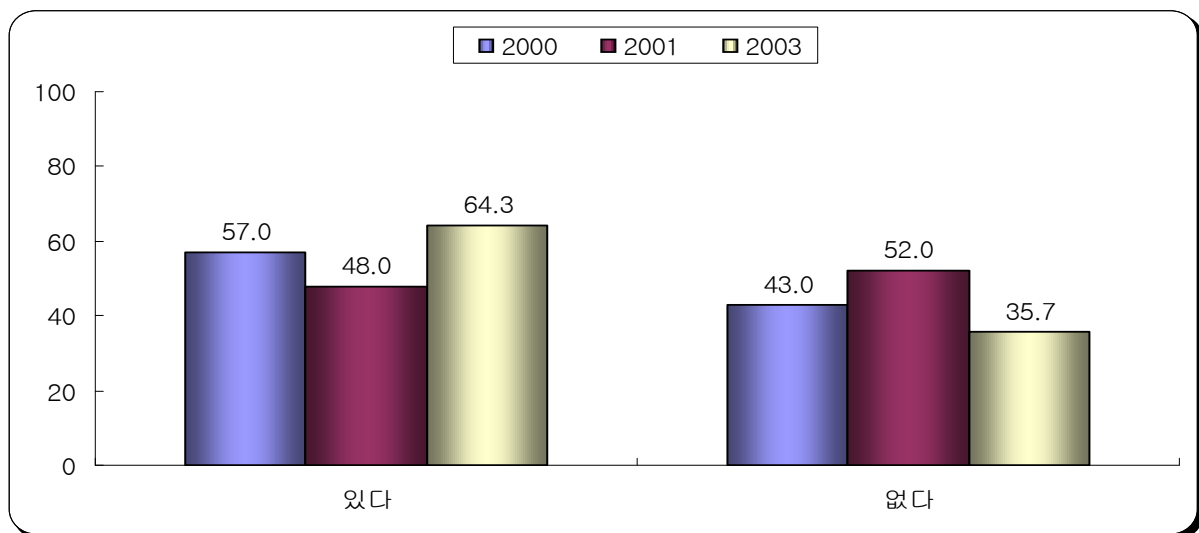
<그림> 종교기관 봉사활동 참여시간

## 2. 2003년 기부 참여 여부

문) 귀하는 작년 한 해 즉 2003년 1월부터 12월 사이 [보기카드 2와 같은 곳에서] ‘기부’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? ARS전화를 통한 기부, 적십자회비, 물품기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. 또한 시설/기관/단체 뿐 아니라, 직계가족(부모, 형제 등)을 제외한 친척이나 친지 등 알고 있는 사람이나 걸인 등 평소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포함됩니다.

◎ 2003년 기부를 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‘있다’는 응답이 64.3%로 나타남.

- 이는 2000년(57.0%)과 2001년(48.0%) 조사에 비해 각각 7.3%포인트 및 16.3%포인트가 증가한 것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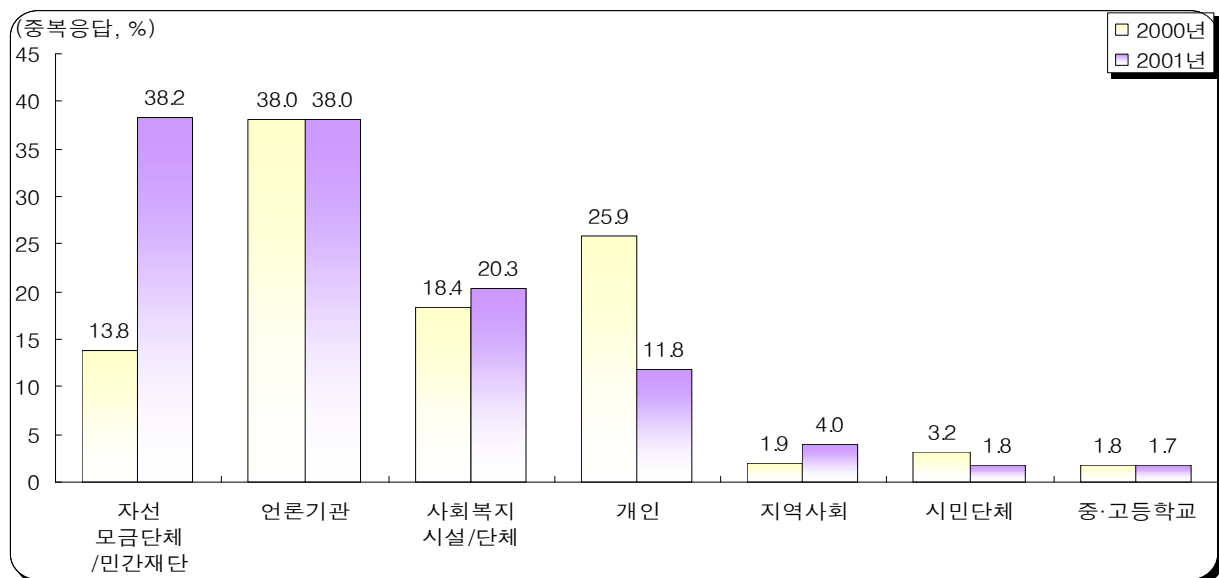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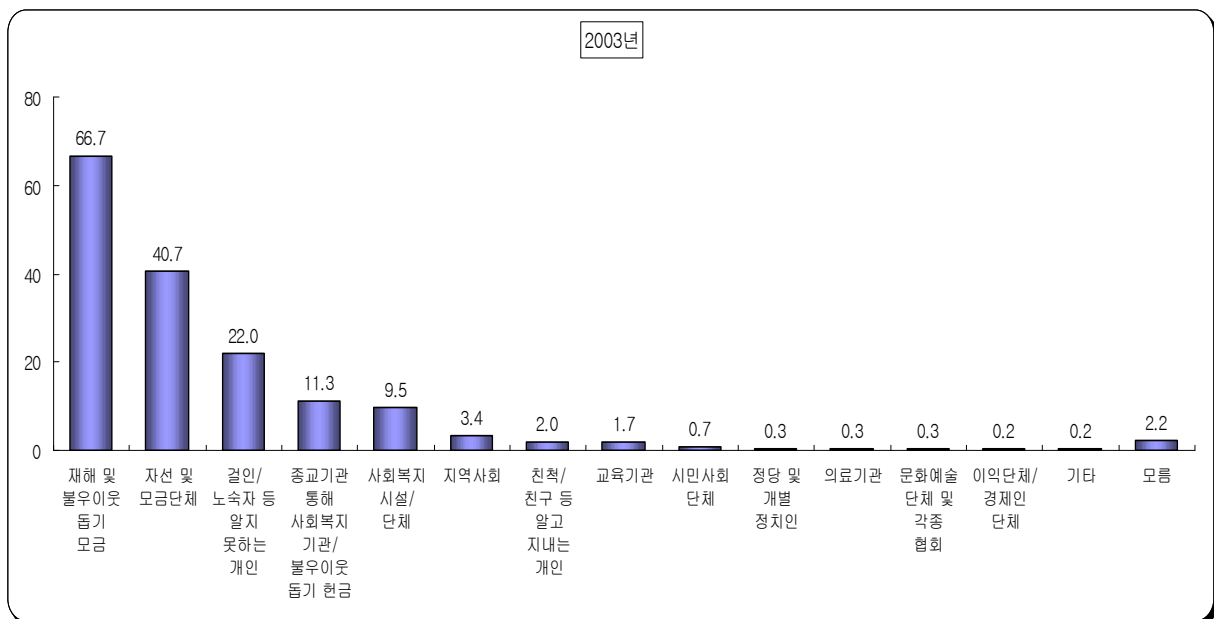
### 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‘있다’는 응답은 30대(73.5%) 및 40대(70.1%), 고졸 학력층(71.5%), 자영업자(75.3%), 주부(74.4%), 인천/경기 거주자(76.4%), 중소도시 거주자(69.3%), 결혼상태 기혼(73.7%), 기독교(70.9%) 및 천주교(77.8%) 신자, 개인소득 200만원이상(72.1%), 가구소득 300만원이상(73.6%), 거주형태 자가(67.1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▷ ‘없다’는 응답은 20대(47.2%), 중졸이하(42.9%) 및 대재이상(40.4%) 학력층, 농/임/어업 종사자(49.1%), 학생(51.2%), 부산/울산/경남(49.5%), 광주/전라(46.2%), 강원(67.1%), 읍/면 지역 거주자(54.5%), 결혼상태 미혼(45.8%) 및 이혼/사별(68.8%), 무신론자(42.3%), 개인소득 50~99만원(46.0%), 가구소득 99만원이하(67.3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
## 2-1. 2003년 기부처

문)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(2003년 1월~12월) '기부 활동'을 한 시설/기관/단체/개인을 [보기카드 2에서 찾아] 모두 말씀해주시요.

- 기부 참여자 650명이 기부한 곳으로는 '재해 및 불우이웃 돕기 모금'이 66.7%로 가장 높았고, '자선 및 모금기관'(40.7%), '결인, 노숙자 등 알지 못하는 개인'(22.0%)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음(n=650).


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'재해 및 불우이웃 돕기 모금'은 고졸 학력층(72.4%), 인천/경기 거주자(78.8%), 개인소득 200만원이상(73.0%), 가구소득 300만원이상(71.6%), 거주형태 전세(75.2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  
- ▷ '자선 및 모금기관'은 여자(46.0%), 50대이상 연령층(53.4%), 중졸이하 학력층(55.1%), 주부(53.7%), 서울(50.7%)·대구/경북(68.0%)·광주/전라(58.6%) 거주자, 결혼상태 기혼(46.7%), 개인소득 50~99만원(65.9%), 거주형태 자가(44.8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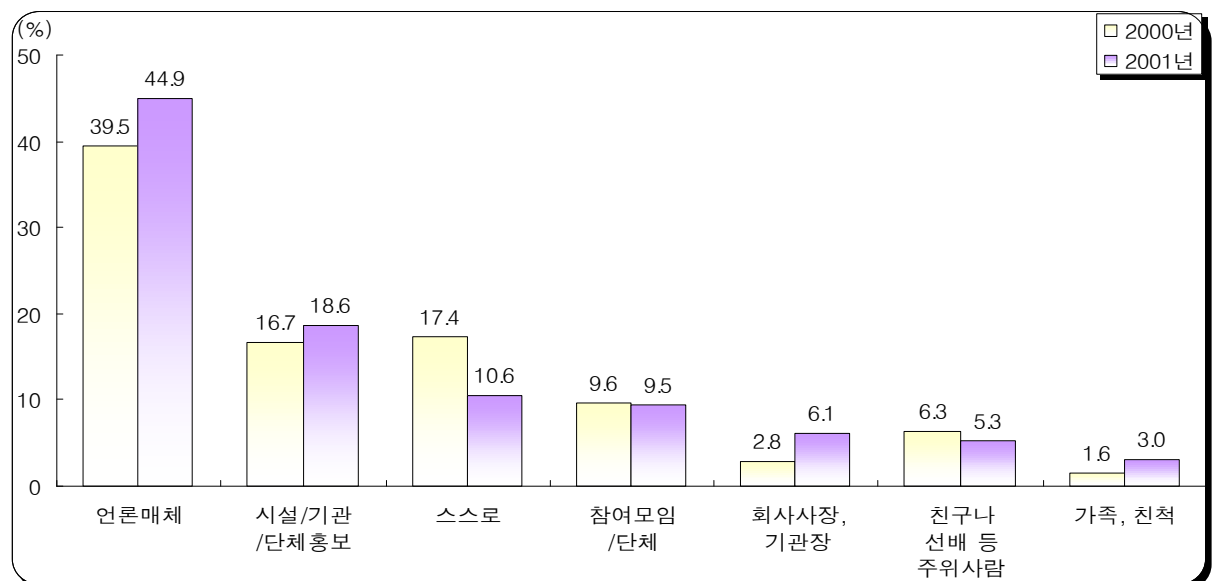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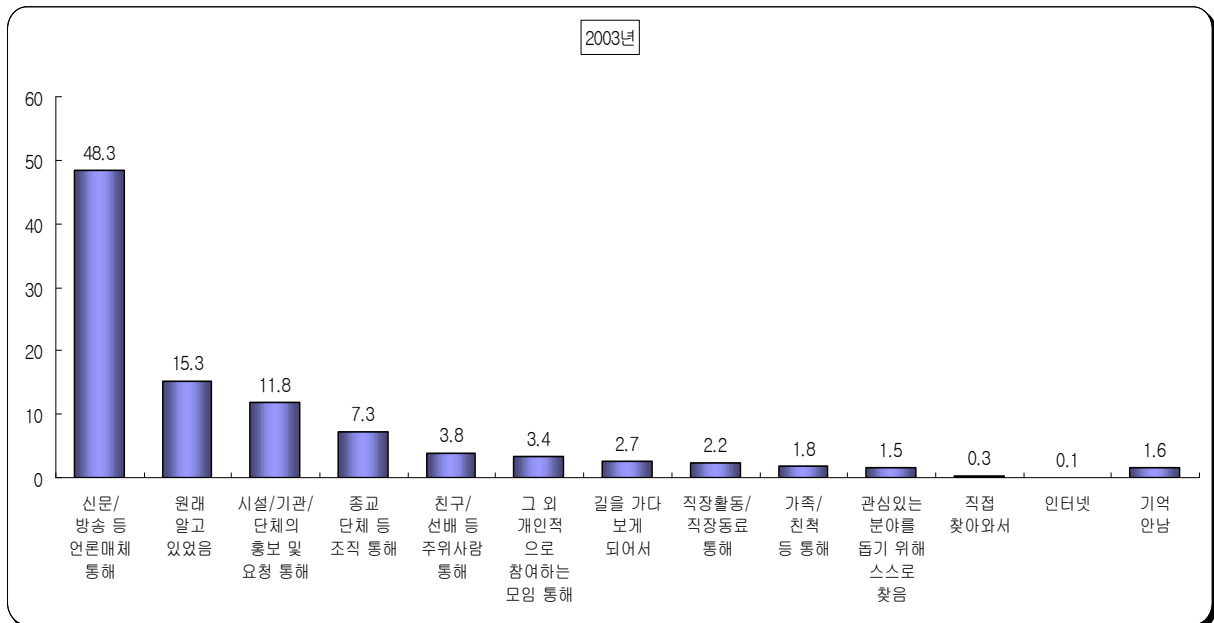


## 2-2. 2003년 기부처 인지 경로

문) 그 '시설/기관/단체/개인'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? 다음 중 해당하는 번호를 각각 하나씩만 말씀해주시요.

- 기부한 곳을 알게 된 경로를 묻는 질문에서 '신문/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'가 48.3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이어서 '원래 알고 있었다'(15.3%), '시설/ 기관/ 단체의 홍보 및 요청을 통해서'(11.8%) 등의 순으로 나타남(response base; n=1,093).

- 언론매체는 2000년(39.5%)과 2001년(44.9%) 조사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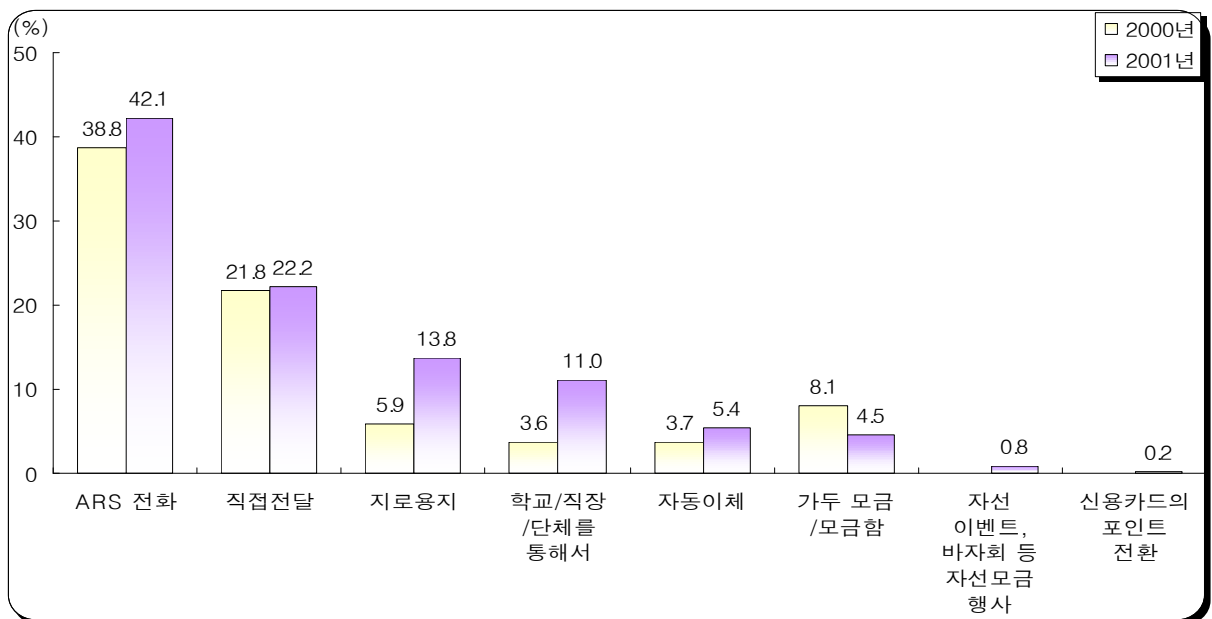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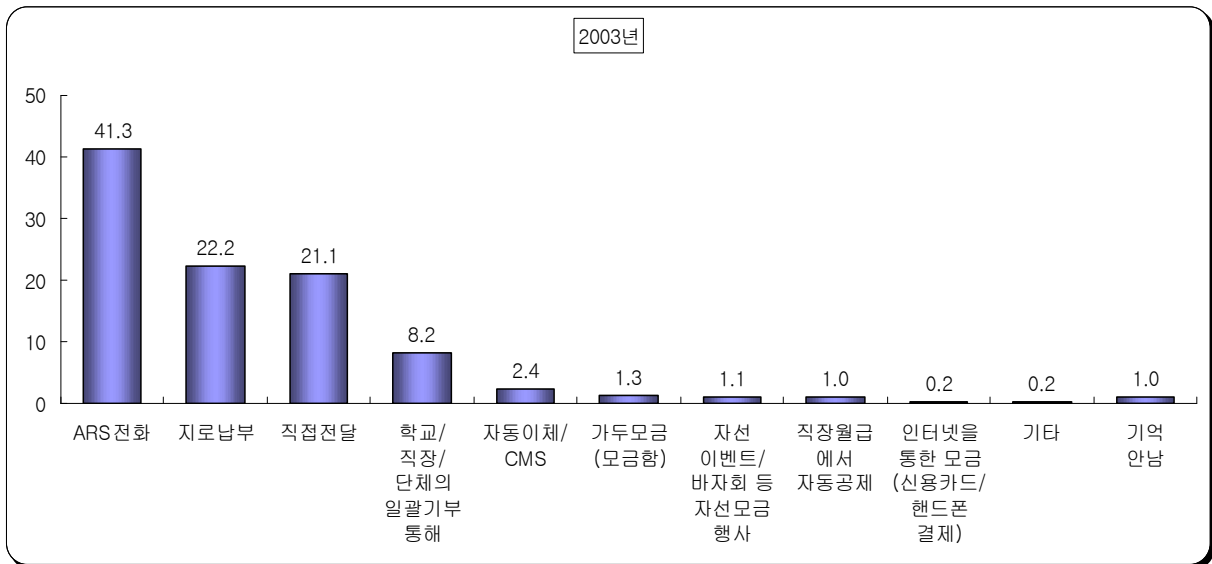


## 2-3. 2003년 기부 방법

문) 그 '시설/기관/단체/개인'에게 어떤 방법으로 '기부'를 하셨습니까?

◎ 기부 방법에서는 'ARS전화'가 41.3%로 가장 높게 나타남(response base; n=1,093).

- ARS전화는 2000년(38.8%)과 2001년(42.1%) 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의 기부 방법이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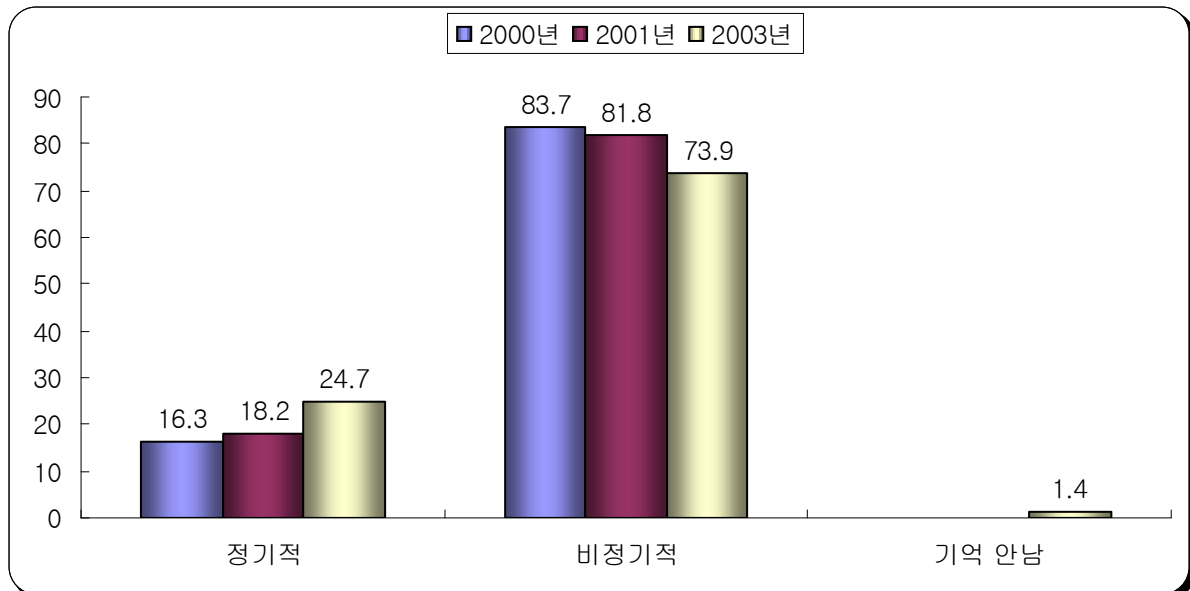


## 2-4. 2003년 기부 정기성 여부

문) 그 시설/기관/단체/개인에 대한 ‘기부’는 정기적으로 하신 것입니까?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하신 것입니까?

◎ 기부의 정기성 여부에서는 ‘정기적’ 기부가 24.7%로 나타남(response base; n=1,093).

- 2000년 16.3%, 2001년 18.2%로 조금씩 정기적 기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.



### 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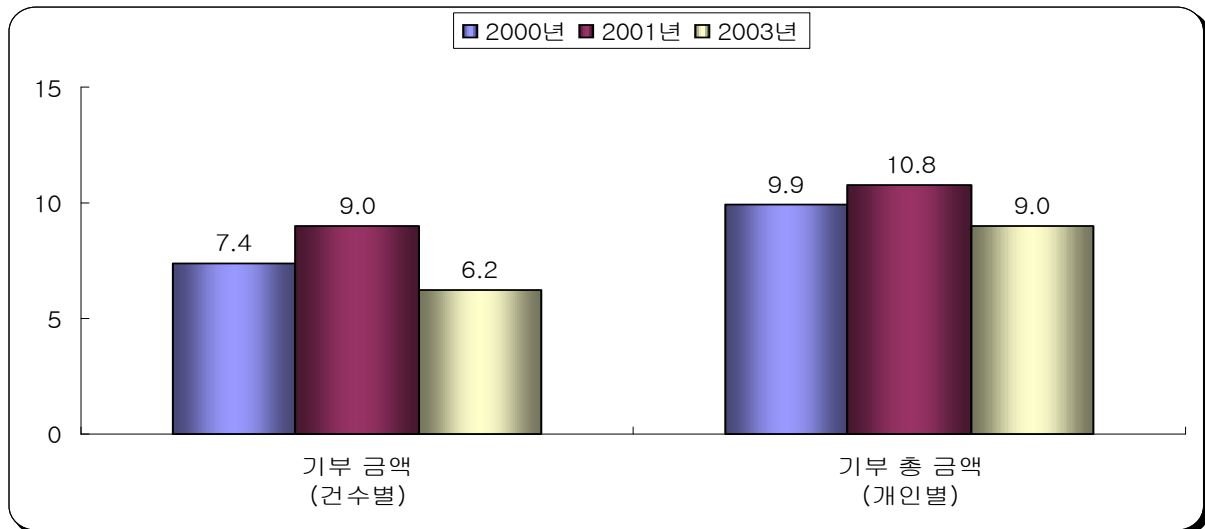
▷ ‘정기적’이라는 응답은 50대이상 연령층(32.5%), 서울(29.0%) 및 대구/경북(48.5%) 거주자, 대도시 거주자(27.2%), 결혼상태 기혼(27.8%), 개인소득 50~99만원(36.6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▷ ‘비정기적’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20대(87.9%), 대재이상 학력층(79.7%), 학생(89.3%), 인천/경기(81.9%) 및 광주/전라(90.8%) 거주자, 결혼상태 미혼(87.3%)임.

## 2-5. 2003년 기부 금액

문) 작년 한 해 동안(2003년 1월~12월) 그 시설/기관/단체/개인에게 ‘기부’한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? 현금(돈)과 현물(물품)을 나누어 응답해주시고, 현물(물품)은 현금 가치로 환산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◎ 2003년 기부 경험자에 한정하여 기부 금액을 살펴보면, ‘건수별 기부 금액’의 평균은 “61,860원”으로 조사됐고, 종교기부를 제외한 ‘개인별 기부 금액’의 평균은 “90,401원”으로 조사됨. 종교적 기부를 포함시키면 250,517원임.
- ‘국민 1인당 종교적 기부를 제외한 평균 기부 금액’은 “57,859원”으로, 2001년 조사의 51,775원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를 보임.
- 기부 참여가 증가한 반면 기부 경험자의 기부 금액 평균이 감소한 이유는 기존 조사에 비해 기부에 대해 응답자가 기부행위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게 인식하도록 한 후 질문하여, 소액 기부자(‘9천원 이하’ 등)가 기부 경험자로 보다 많이 흡수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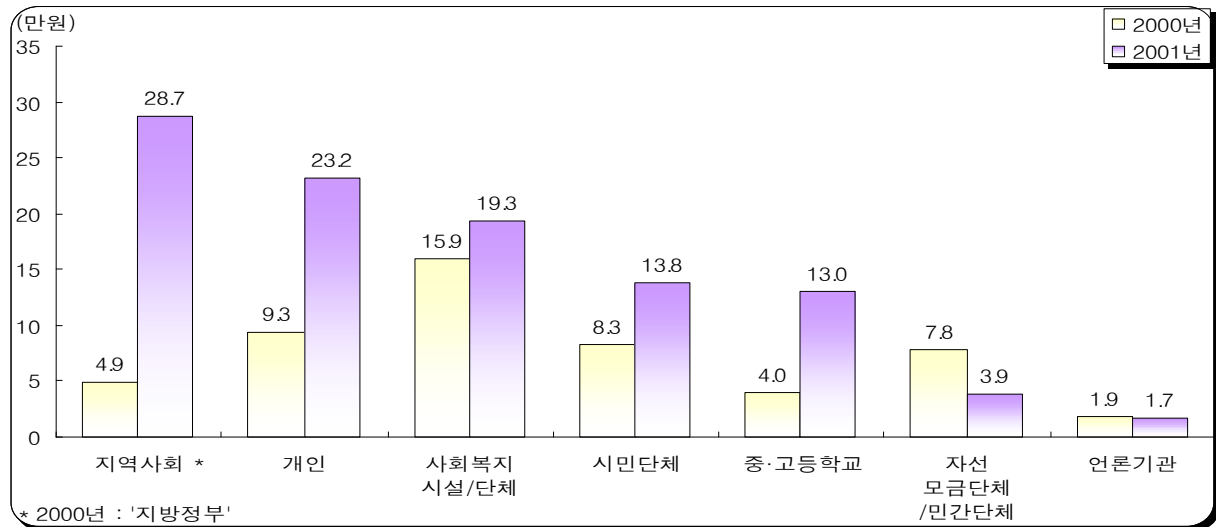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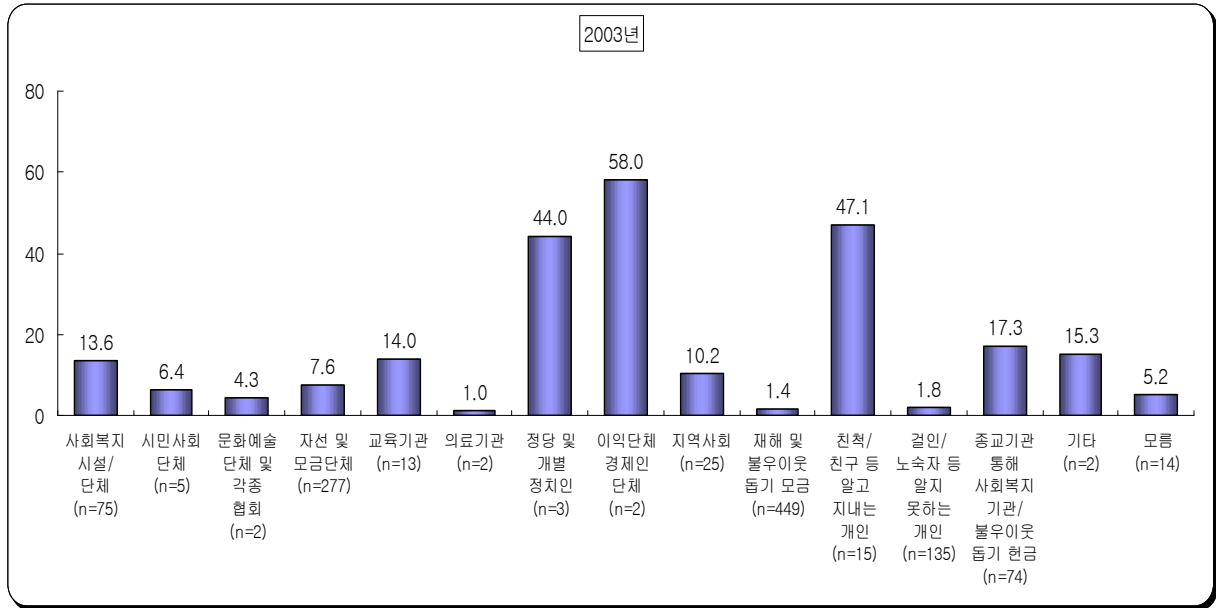
<그림> 기부 금액

### 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‘개인별’ 기부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남자(12만8천원), 40대(19만5천원), 고졸 학력층(11만9천원), 자영업자(32만5천원), 서울 거주자(14만7천원), 대도시 거주자(10만1천원), 결혼상태 기혼(11만1천원), 기독교(19만3천원) 및 천주교(11만2천원) 신자, 개인소득 200만원이상(20만4천원), 가구소득 300만원이상(15만6천원), 거주형태 자가(11만원)임.

◎ 기부처별로 살펴보면, '사회복지 시설/ 단체'(n=75) 13만6천원, '자선 및 모금 단체'(n=277) 7만6천원, '지역사회'(n=25) 10만2천원, '재해 및 불우이웃 돕기 모금'(n=449) 1만4천원, '결인, 노숙자 등 알지 못하는 개인'(n=135) 1만8천원, '종교기관을 통해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 돕기 현금'(n=74) 17만3천원 등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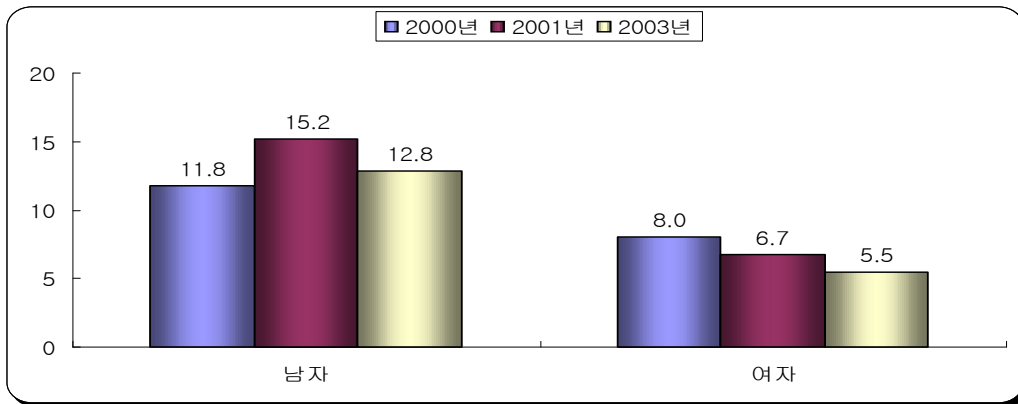
- 여타 기부처는 표본수가 10 내외로 적어,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.



<그림> 기부처별 기부 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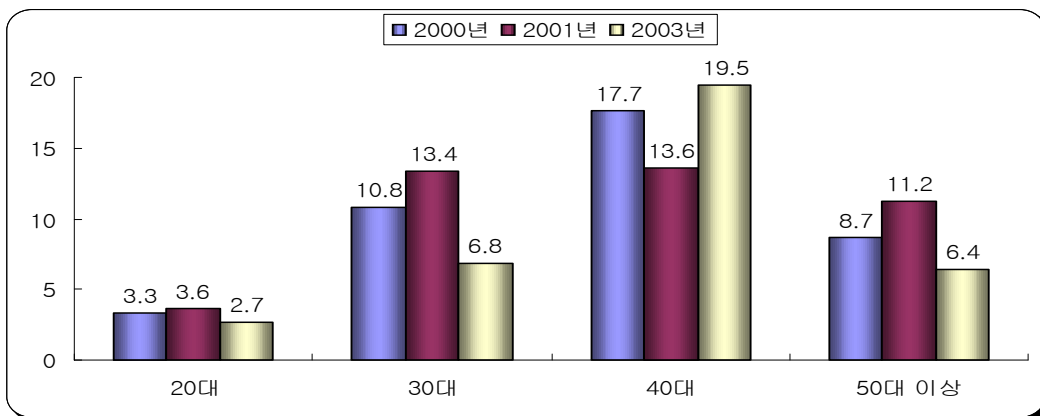
▣ 인구사회적 특성별 기부 금액 세부 비교

◎ 기부 금액을 성별로 비교하면,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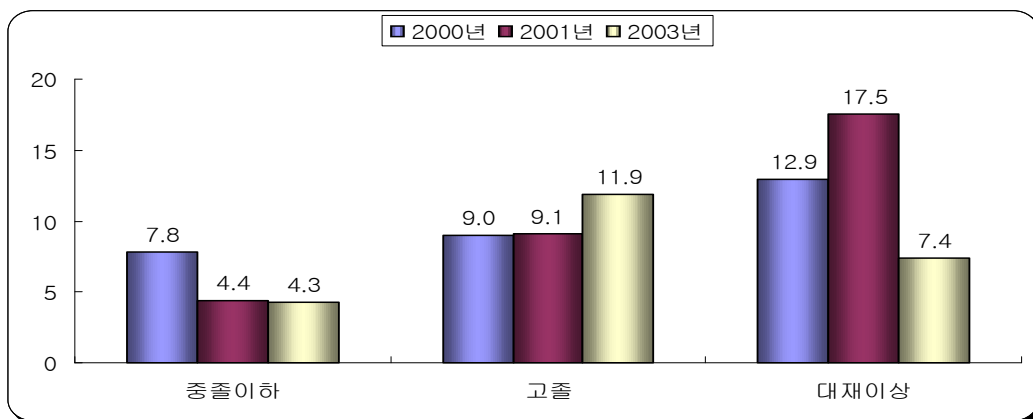
<그림> 성별 기부 금액

◎ 연령대별로는 40대가 눈에 띄게 높았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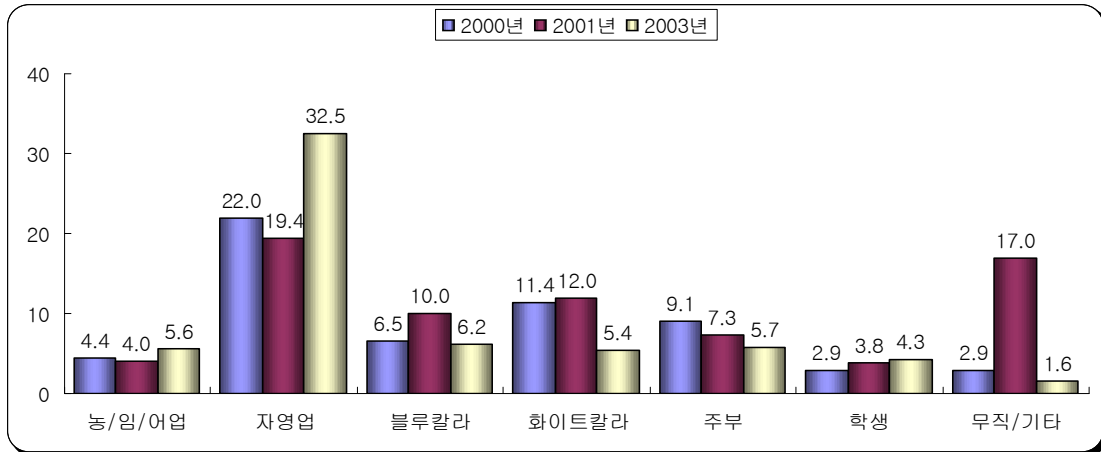
<그림> 연령대별 기부 금액

◎ 학력별로는 기존조사에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기부금액이 높았던 것과 달리, 고졸 학력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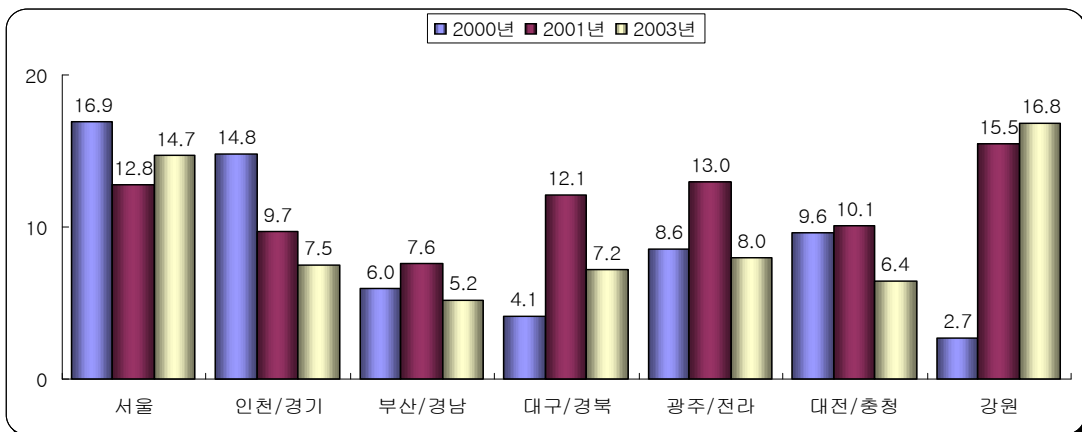
<그림> 학력별 기부 금액

◎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기부 금액이 여타 직업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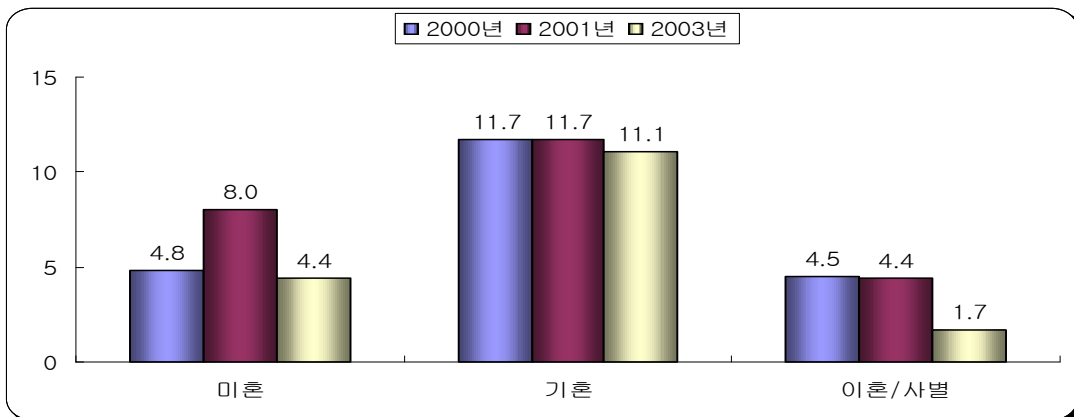
<그림> 직업별 기부 금액

◎ 서울이 여타 지역보다 상당히 높았음. 강원외의 경우 사례수가 11로 작아 의미를 부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음.



<그림> 지역별 기부 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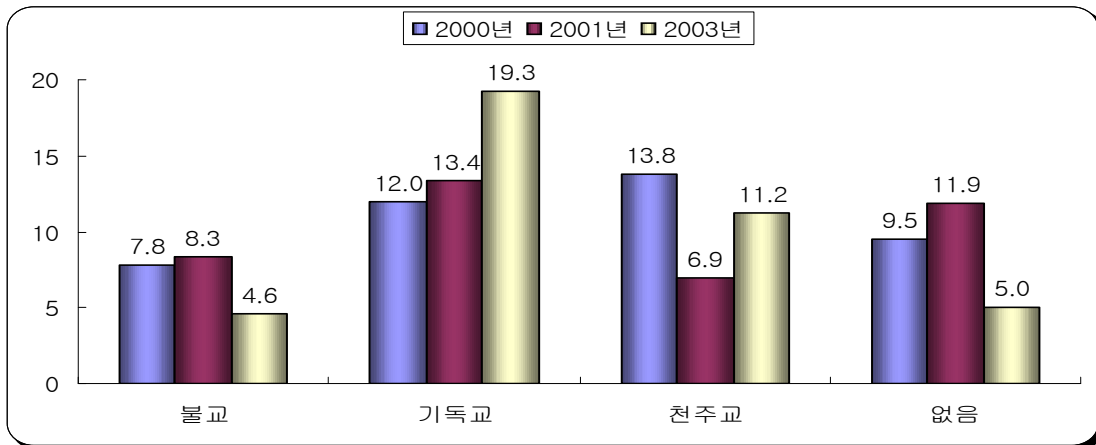
◎ 결혼상태별로는 기혼 > 미혼 > 이혼/사별의 순으로 나타남.



<그림> 결혼상태별 기부 금액



◎ 종교별로는 기독교 > 천주교 > 무교 > 불교의 순서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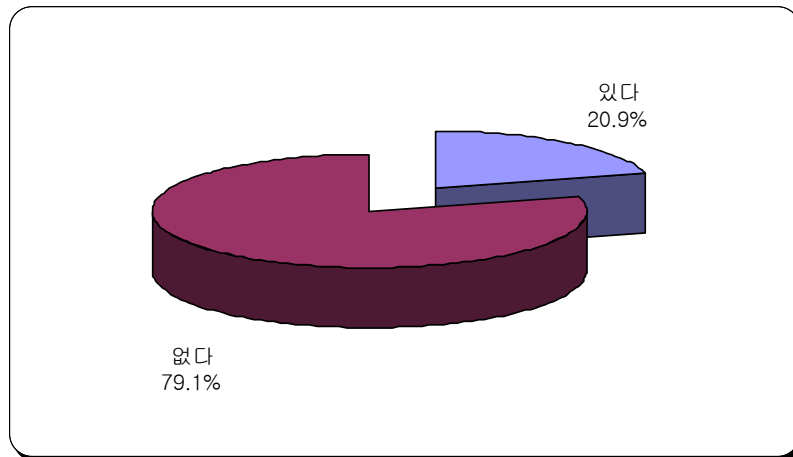


<그림> 종교별 기부 금액

## 2-6. 2003년 종교기관 기부 참여율 및 기부 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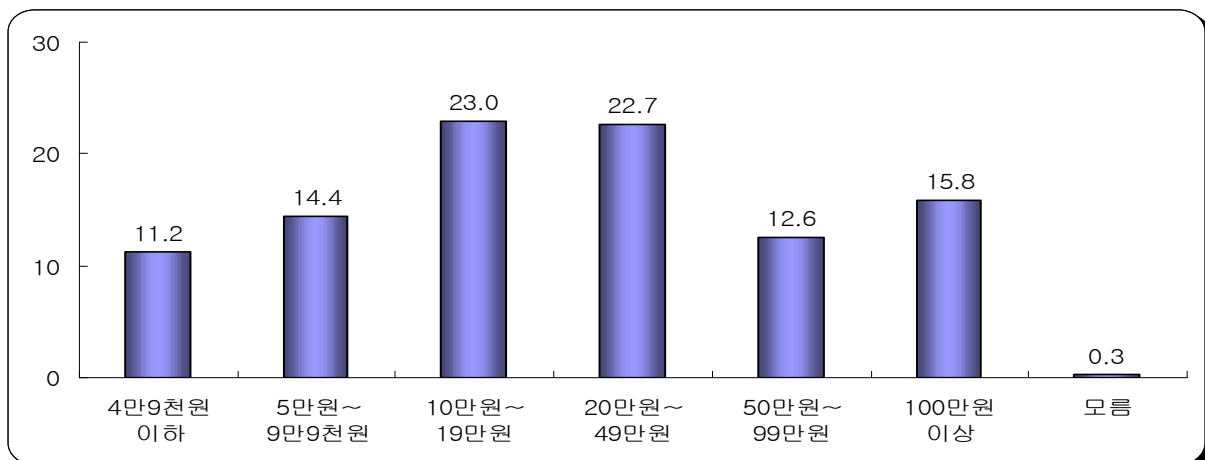
문) 작년 한 해 동안(2003년 1월~12월) 그 시설/기관/단체/개인에게 '기부'한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? 현금(돈)과 현물(물품)을 나누어 응답해주시고, 현물(물품)은 현금 가치로 환산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◎ 2003년 교회, 성당, 절 등의 종교기관에 순수현금을 한 적이 있는지 묻은 결과, 응답자 1,011명 중 '있다'는 응답이 20.9%로 나타남.



<그림> 종교기관 순수현금 참여율

- ◎ 종교기관에 순수현금을 한 적이 있다는 211명의 현금액 비율은 '10~19만원'(23.0%)과 '20~49만원'(22.7%)에서 높게 나타남(n=211).  
- 한편, 현금을 한 이들의 순수현금 평균 금액은 "57만4천원"이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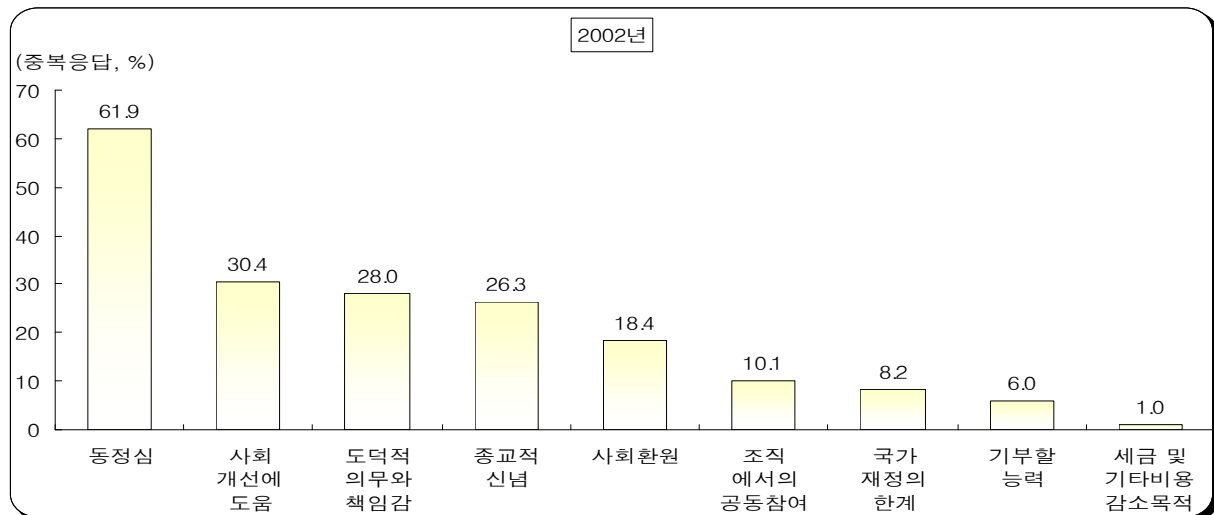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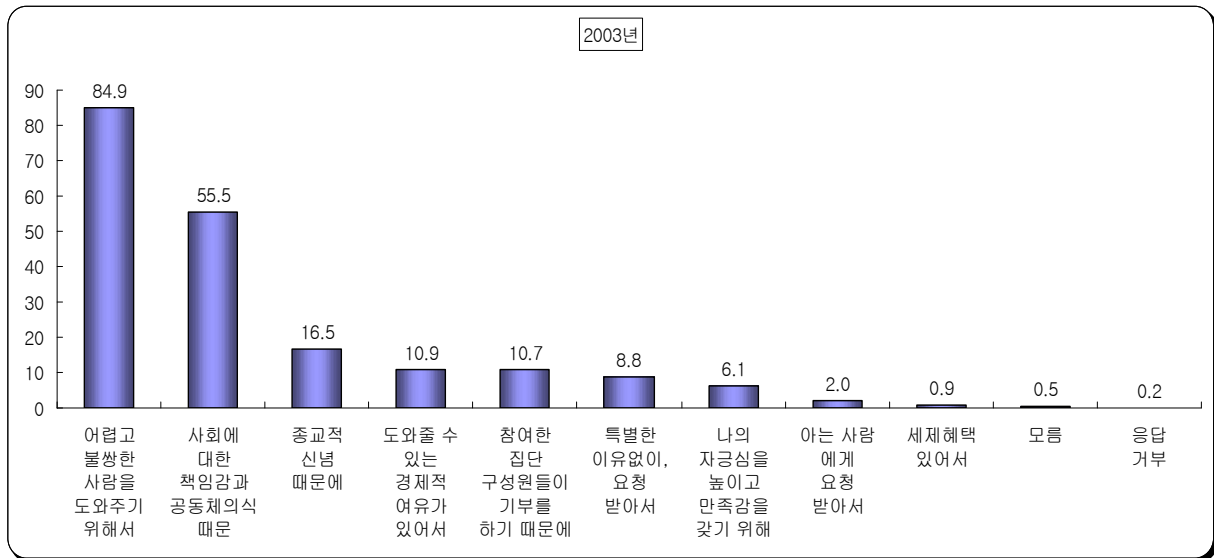


<그림> 종교기관 순수현금액

### 3. 기부의 이유

문) 귀하께서 ‘기부’를 하시는 이유’는 무엇입니까? 가장 큰 이유와 두 번째로 큰 이유를 다음 보기 중에서 골라 주십시오.

- ◎ 2003년 기부 참여자 650명의 기부 이유로는 ‘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’가 84.9%로 가장 높았고, ‘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 때문에’가 55.5%로 두 번째로 높았음(중복응답; n=650).



#### 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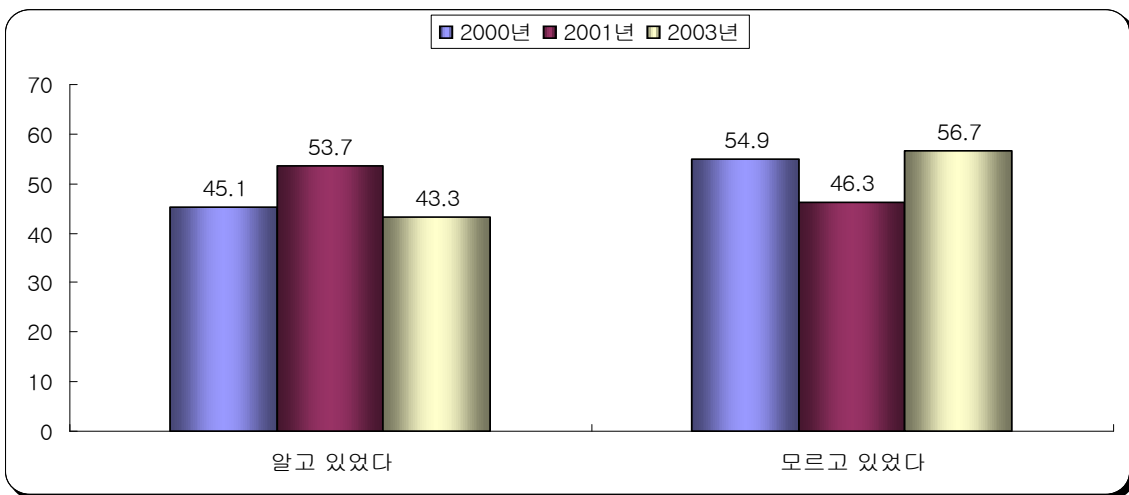
- ▷ ‘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’라는 응답은 거의 대부분의 계층에서 80%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.

## 4. 기부금의 세금공제 혜택 인지 여부 및 이용 여부

문) 귀하는 기부를 하신 돈이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?

문) (문4의 ①번 응답자만) 그럼, 귀하는 작년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을 이용하셨습니까?

- ◎ 기부한 돈의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인지 여부를 묻은 결과, '알고 있었다'는 응답이 43.3%로 '모르고 있었다'는 응답(56.7%)보다 낮게 나타남(n=650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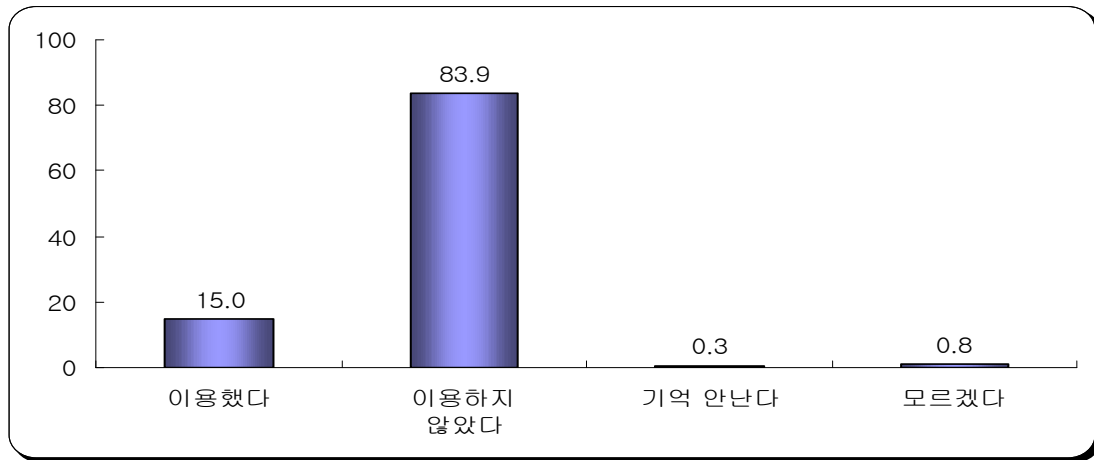


<그림> 세금공제 인지 여부

### 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'알고 있었다'는 응답은 40대(55.1%), 학력수준이 높을수록(대재이상: 53.0%), 자영업자(55.1%), 블루칼라(60.2%), 광주/전라 거주자(75.0%), 중소도시 거주자(49.5%), 결혼상태 기혼(47.8%), 천주교 신자(55.6%), 개인소득 200만원이상(57.2%), 가구소득 300만원이상(53.1%), 거주형태 자가(46.7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▷ '모르고 있었다'는 응답은 20대(72.8%), 학력수준이 낮을수록(중졸이하: 64.5%), 농/임/어업 종사자(74.0%), 학생(82.9%), 서울(65.7%) 및 대전/충청(70.1%) 거주자, 대도시 거주자(61.5%), 결혼상태 미혼(65.2%), 개인소득 49만원이하(61.4%) 및 50~99만원(73.4%), 가구소득 99만원이하(74.2%) 및 200만원대(65.4%), 거주형태 전세(64.9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
- ◎ 세금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 중 실제 세금공제 혜택을 '이용했다'는 응답은 15.0%로 낮게 나타남(n=282).



<그림> 세금공제 이용 여부
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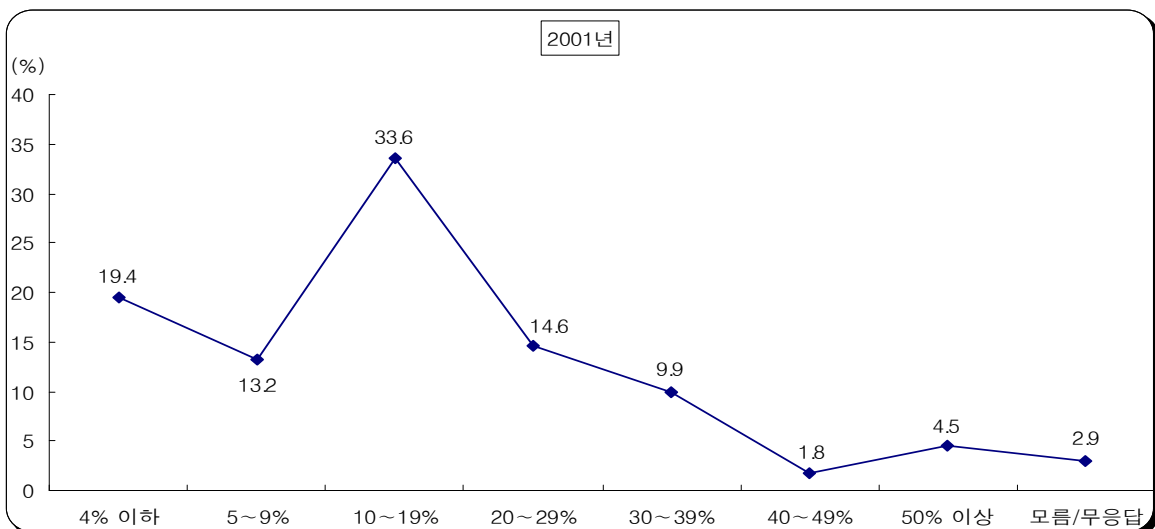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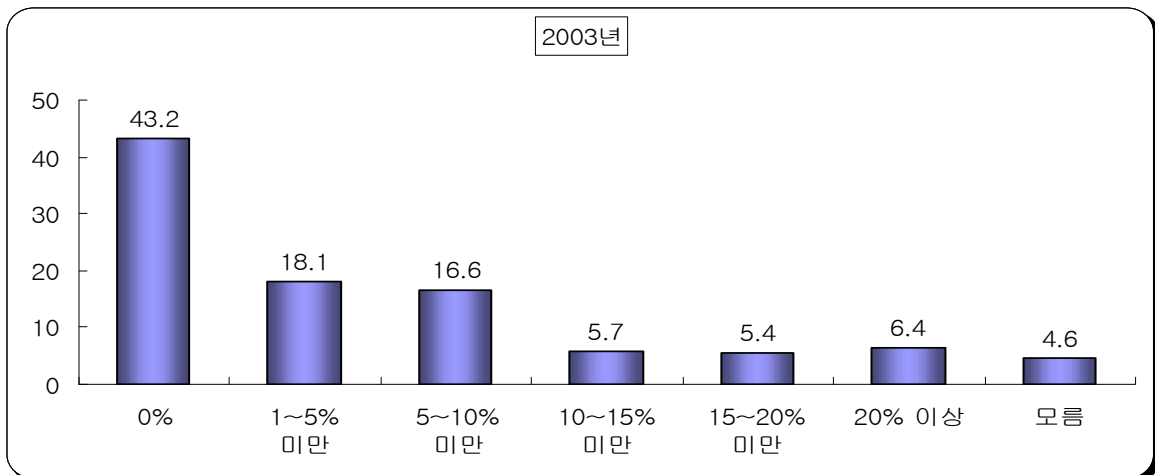
- ▷ '이용했다'는 응답은 40대(21.7%), 블루칼라(28.0%), 결혼상태 기혼(18.7%), 가구 소득 300만원이상(23.3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▷ '이용하지 않았다'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20대(100.0%), 중졸이하 학력층(94.0%), 자영업자(94.7%), 결혼상태 미혼(98.2%)임.

## 5. 기부금의 기부처 운영 및 행정 비용 적정 범위

문) 기부된 돈의 일부는 기부 단체나 기관/시설의 운영 및 행정 비용 등으로 쓰이게 됩니다. 귀하께서는 기부된 돈의 몇 퍼센트(%) 정도가 운영 및 행정 비용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

◎ 기부 참여자들은 기부금이 기부 단체·기관·시설의 운영/행정 비용으로 쓰여질 비율에 대해 '전액이 기부대상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(0%)'가 43.2%로 가장 높았고, 이어서 '1~5% 미만'(18.1%), '5~10% 미만'(16.6%) 등의 순으로 나타남(n=650).

☞ [참고] 본조사는 객관식(closed-ended)으로 질문한 반면, 2002년 조사에서는 주관식(open-ended)으로 질문하였고, 워딩도 다소 수정됨('허용할 수 있는 최대범위를 적어주십시오' 삭제).


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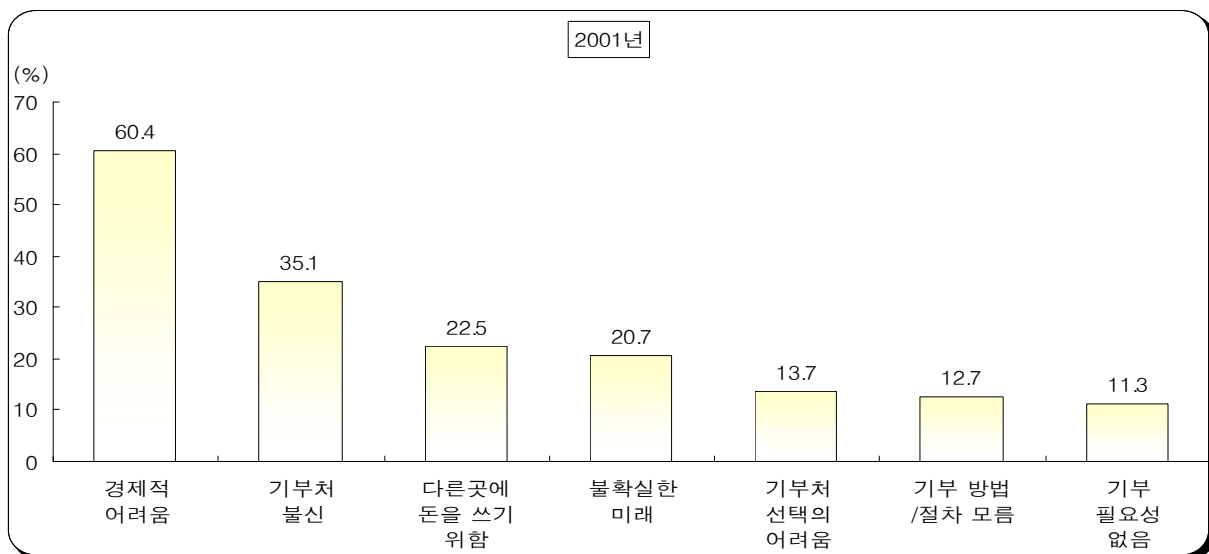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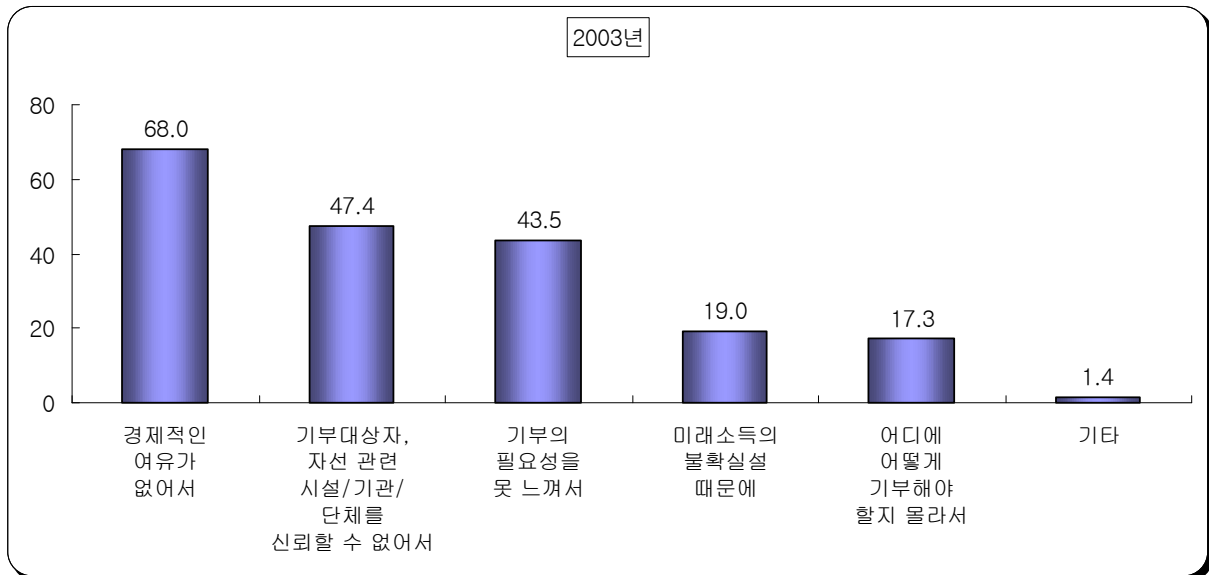
- ▷ '기부한 돈 전액이 기부대상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'는 응답은 중졸이하 학력층(51.5%), 자영업자(54.9%), 화이트칼라(52.2%), 인천/경기(49.7%)·광주/전라(68.5%)·대전/충청(66.0%) 거주자, 중소도시 거주자(52.8%), 가구소득 99만원이하(70.1%), 거주형태 전세(53.2%) 및 월세(70.3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▷ '20% 이상'이라는 응답은 결혼상태 이혼/사별(16.5%), 개인소득 50~99만원(13.8%), 가구소득 99만원이하(17.2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


## 6. 기부하지 않은 이유(비기부자 한정)

문) 귀하께서 '기부를 하지 않으신 이유'는 무엇입니까? 가장 큰 이유와 두 번째로 큰 이유를 아래에서 골라 주십시오.

- ◎ 2003년에 기부한 적이 없다는 361명에 한정하여 기부하지 않은 이유를 묻은 결과, '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'가 68.0%로 가장 높았고, '기부대상자 및 자선 관련 시설/기관/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'가 47.4%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(중복응답; n=361)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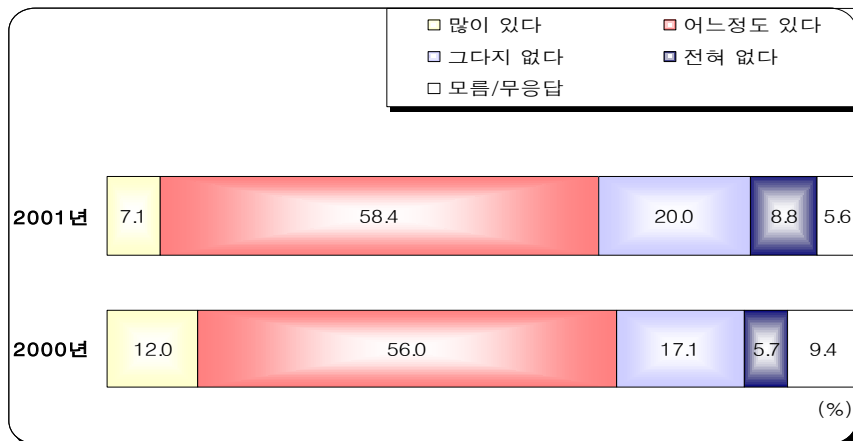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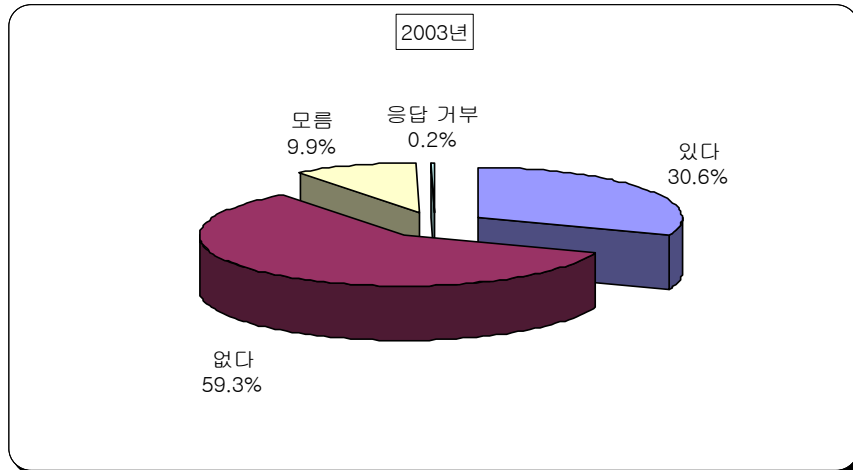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'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'라는 응답은 50대이상 연령층(77.7%), 중졸이하 학력층(81.4%), 농/임/어업 종사자(86.1%), 읍/면 지역 거주자(80.5%), 결혼상태 이혼/사별(87.6%), 불교신자(80.3%), 가구소득 99만원이하(84.8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▷ '기부대상자 및 자선 관련 시설/기관/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'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대재이상 학력층(59.2%), 서울 거주자(71.5%), 결혼상태 기혼(55.2%)임.
- ▷ '기부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'라는 응답은 블루칼라(65.3%), 광주/전라 거주자(56.8%), 무신론자(50.9%), 개인소득 100만원대(60.8%), 가구소득 100만원대(53.4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
## 7. 향후 1년 내 기부 의향(비기부자 한정)

문) 귀하는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?

- ◎ 2003년 기부 비참여자 중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이 '있다'는 응답은 30.6%에 그침('없다' 59.3% ; n=361).



### 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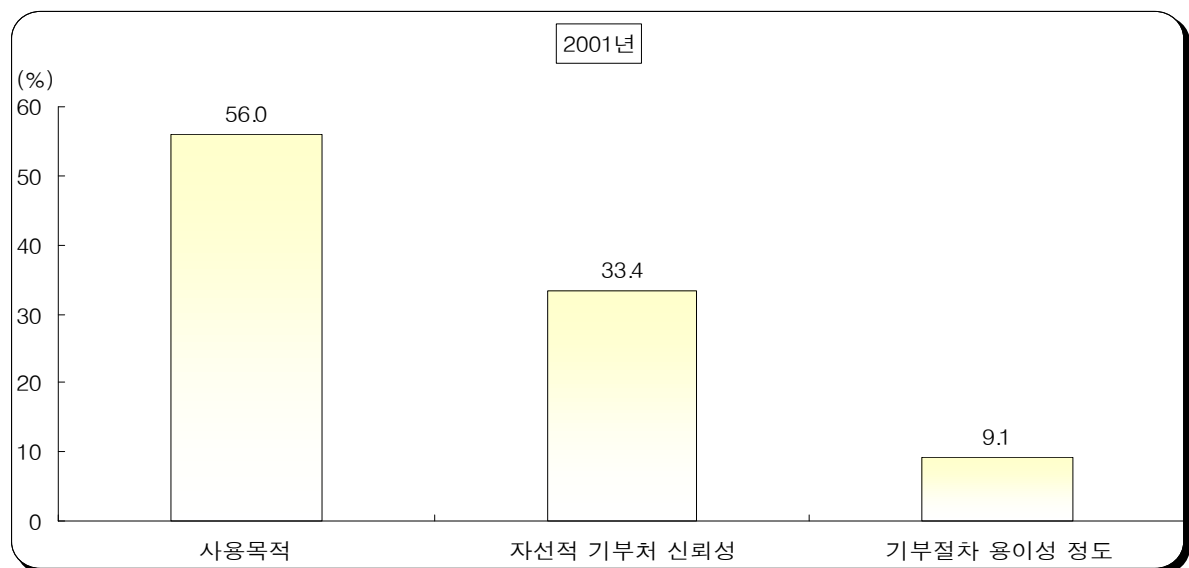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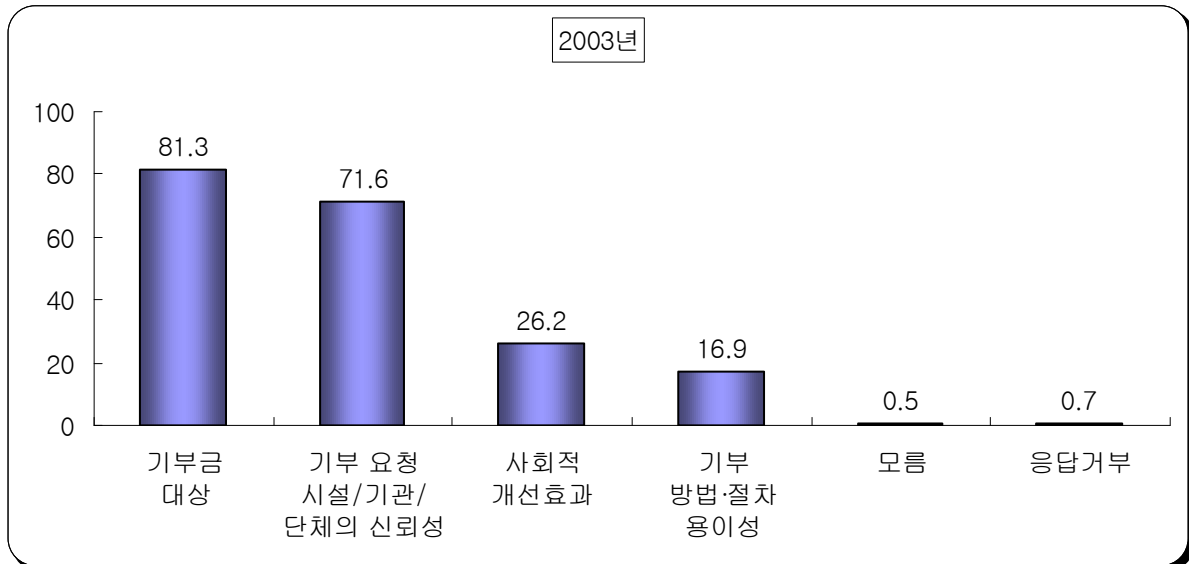
- ▷ '(의향이) 있다'는 응답은 30대(41.7%), 고졸 학력층(43.9%), 학생(48.6%), 서울(44.5%) 및 인천/경기(51.4%) 거주자, 대도시 거주자(35.8%), 기독교 신자(43.7%), 개인소득 200만원이상(43.3%), 가구소득 200만원대(41.1%) 및 300만원 이상(47.2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▷ '없다'는 응답은 50대이상 연령층(73.8%), 중졸이하 학력층(83.9%), 농/임/어업 종사자(83.8%), 부산/울산/경남(76.1%) 및 광주/전라(76.5%) 거주자, 읍/면 지역 거주자(79.8%), 결혼상태 이혼/사별(72.7%), 가구소득 99만원이하(85.7%) 및 100만원대(79.8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
## 8. 기부참여 결정 시 고려사항

문) 귀하께서 향후에 기부참여를 하기로 결정하신다면, 다음 중 어떤 점을 가장 크게 고려하시겠습니까?

- 기부참여 결정 시 고려할 점으로는 '기부금의 대상이 누구인가'(81.3%)가 가장 높았고, '기부를 요청하는 시설/기관/단체가 믿을 만 한가'(71.6%)가 다음으로 높았음(중복응답).

☞ 본 문항부터 전체 응답자 1,011명에 대한 질문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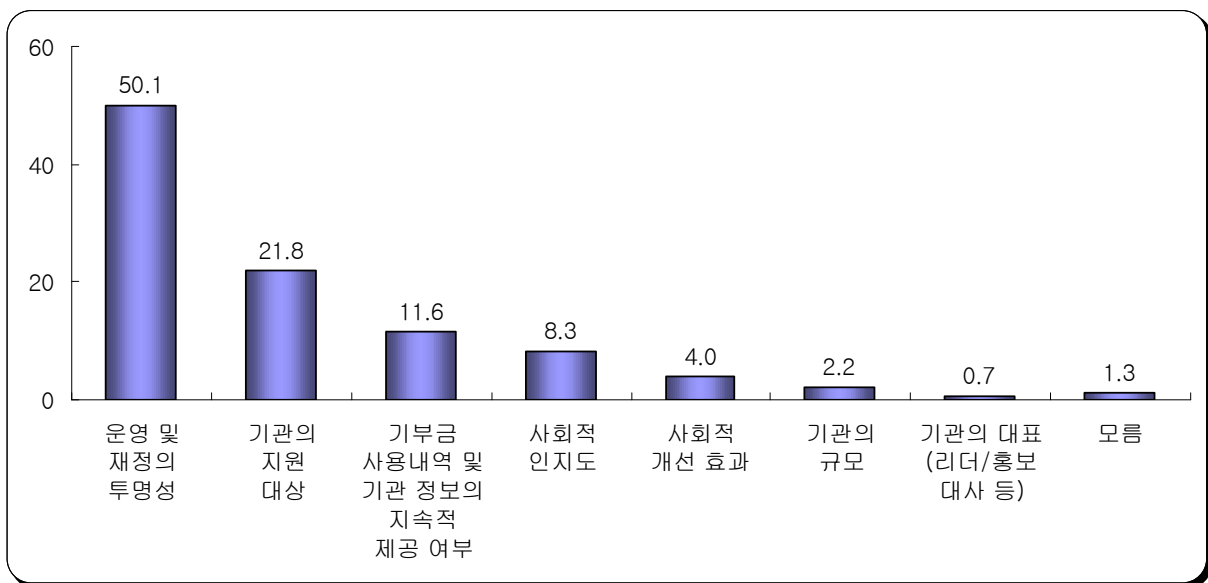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'기부금의 대상이 누구인가'는 자영업자(89.9%), 대구/경북 거주자(95.3%), 개인 소득 200만원이상(88.0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  
- ▷ '기부를 요청하는 시설/기관/단체가 믿을 만 한가'는 여자(74.5%), 50대이상 연령층(77.5%), 고졸 학력층(75.4%), 블루칼라(77.8%), 서울(77.0%)·인천/경기(77.0%)·대구/경북(79.9%) 거주자, 대도시 거주자(76.1%), 기독교 신자(76.9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
## 9. 자선/모금기관 기부 시 고려사항

문) 귀하께서 자선기관이나 모금기관을 통해 기부하신다면, 다음 중 기관의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시겠습니까?

- ◎ 자선기관 또는 모금기관을 통해 기부할 경우, 가장 많이 고려할 기관의 특성으로는 '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이 있는 기관인가' 여부가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50.1%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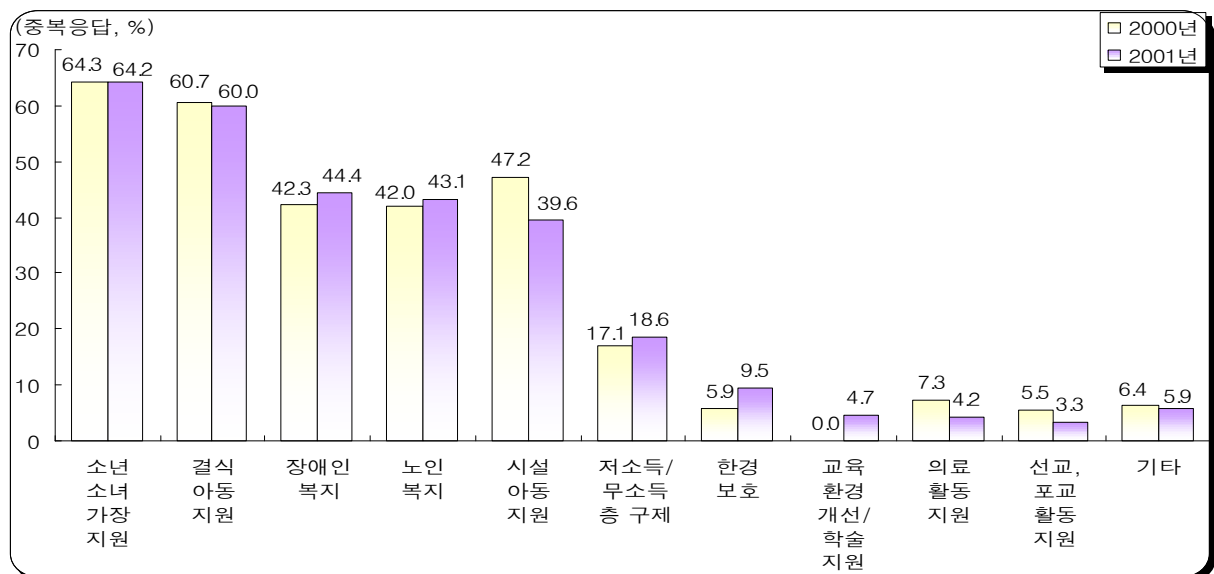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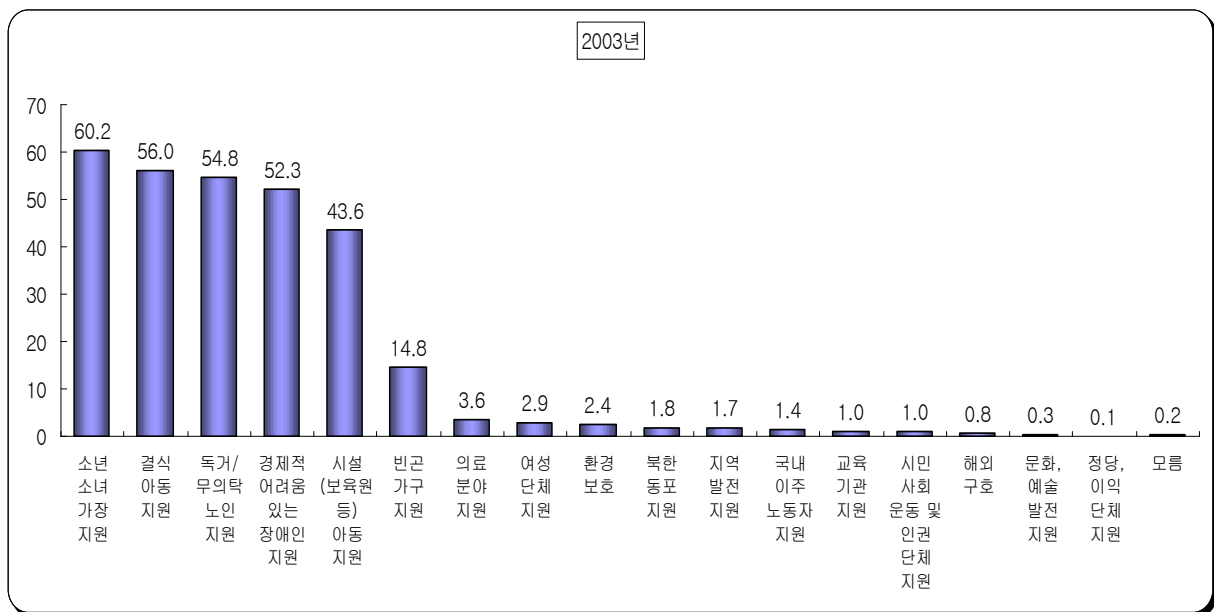
### 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'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이 있는 기관인가'라는 응답은 대도시 거주자(54.0%), 결혼상태 이혼/사별(63.6%), 개인소득 200만원이상(59.6%), 가구소득 300만원이상(55.1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
## 10. 기부금 사용 희망 분야

문)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, 그 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떤 분야에 쓰여지기를 희망하십니까? 희망하시는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.

- 기부금 사용 희망분야로는 '소년소녀 가장 지원'이 60.2%로 가장 높았고, 이어서 '결식 아동 지원'(56.0%), '독거 및 무의탁 노인 지원'(54.8%), '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지원'(52.3%) 등의 순으로 나타남(3가지 중복응답).


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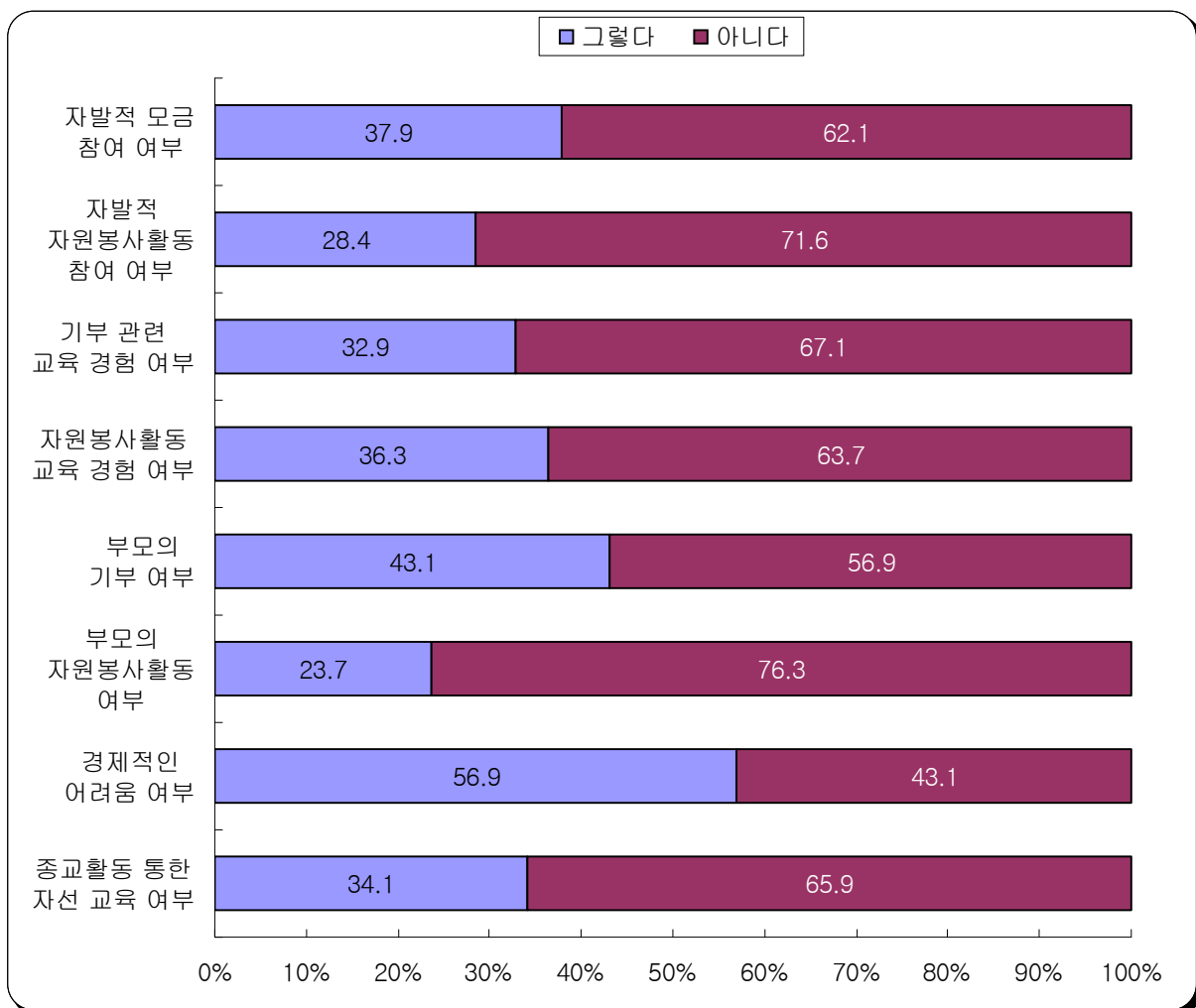
- ▷ '소년소녀 가장 지원'은 서울 거주자(68.2%), 대도시 거주자(63.4%), 가구소득 300만원이상(65.4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▷ '결식 아동 지원'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20대(63.2%), 서울(67.4%) 및 대전/충청(65.8%) 거주자, 대도시 거주자(62.2%), 가구소득 300만원이상(60.7%), 거주형태 전세(62.3%)임.
- ▷ '독거 및 무의탁 노인 지원'은 50대이상 연령층(66.7%), 중졸이하 학력층(63.7%), 자영업자(70.2%), 부산/울산/경남 거주자(68.5%), 읍/면 지역 거주자(65.9%), 결혼상태 기혼(58.1%) 및 이혼/사별(69.8%), 불교신자(61.3%), 가구소득 99만원이하(68.7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- ▷ '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장애인 지원'은 50대이상 연령층(57.2%), 화이트칼라(61.2%), 강원 거주자(74.2%), 중소도시 거주자(58.1%), 개인소득 100만원대(59.7%), 거주형태 전세(58.8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


## 11. 성장기 경험

문) 귀하는 초/중/고등학교 시절에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? ‘그렇다’와 ‘아니다’ 중 선택해주시요.

- 인구사회적 특성의 성격을 갖는 본 문항에서 ‘경제적 어려움 경험’(56.9%)은 여타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, ‘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’(28.4%)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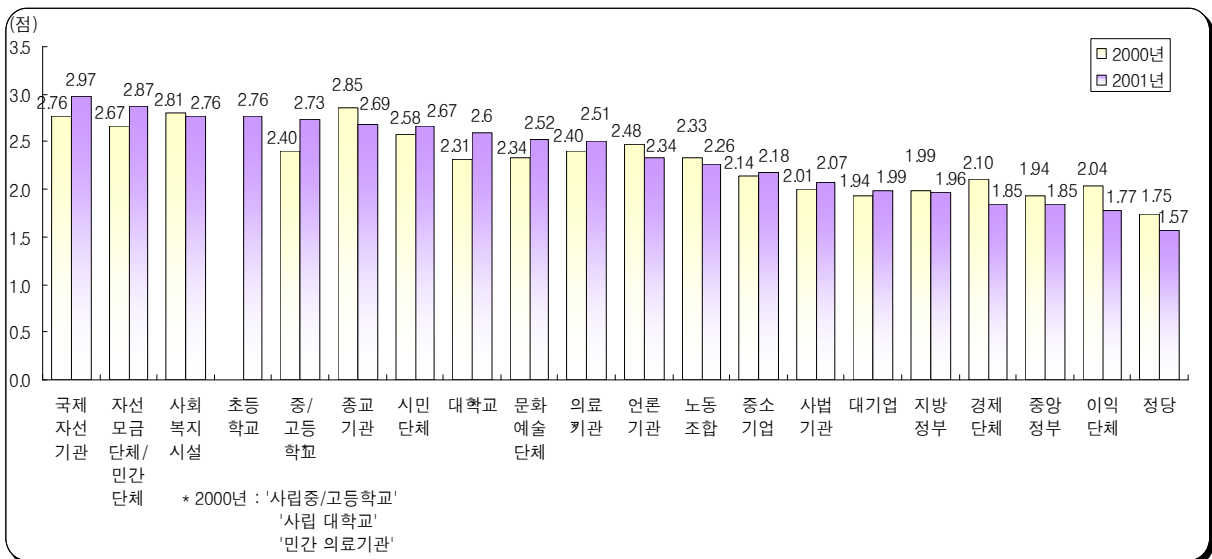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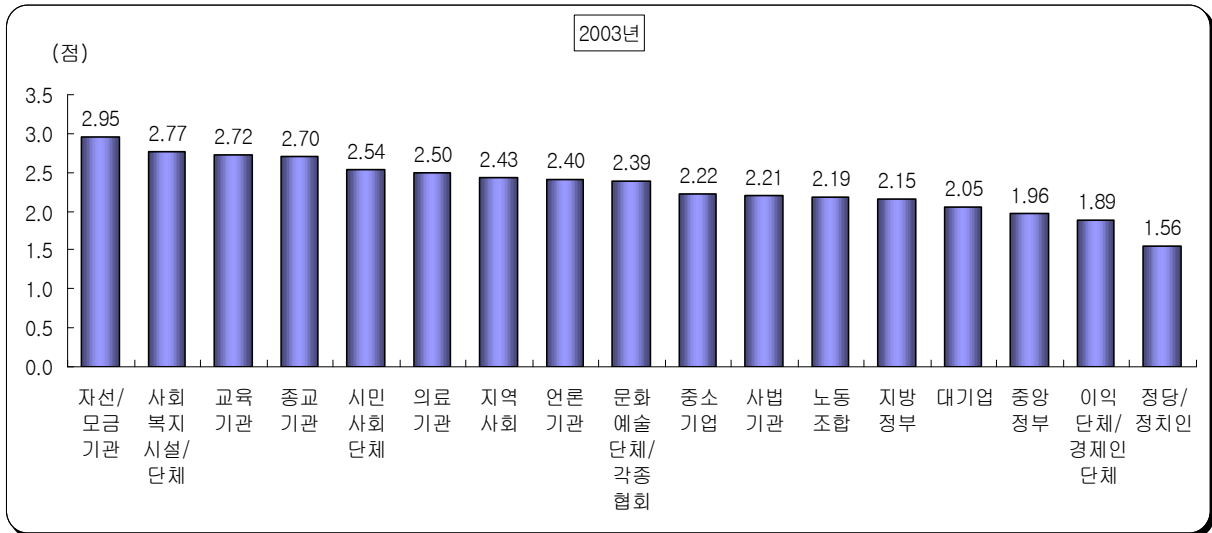


## 12. 시설/기관/단체별 신뢰도

문)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시설/기관/단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?

◎ 시설/기관/단체별 신뢰도를 물은 결과, '자선 및 모금기관'이 4점 만점 중 2.9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이어서 '사회복지 시설/단체'(2.77점), '교육기관'(2.72점), '종교기관'(2.70점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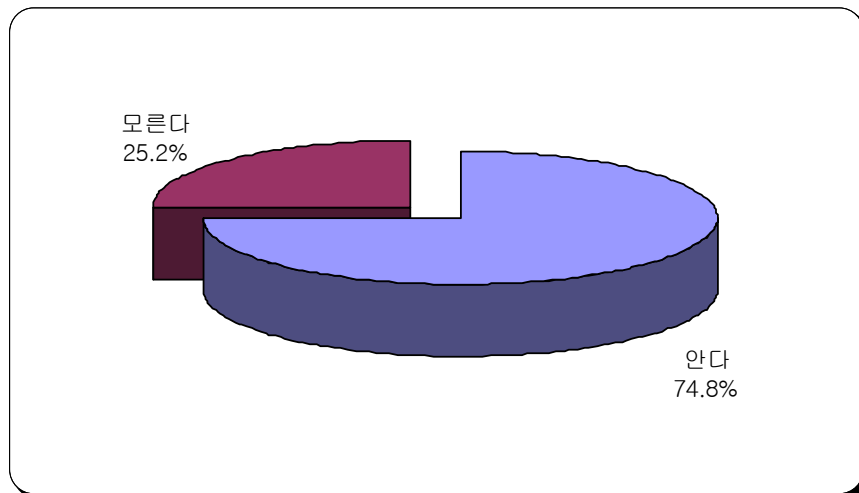
☞ 4점 만점 점수환산은 응답자의 응답이 "전혀 신뢰하지 않는다"면 1점, "신뢰하지 않는 편이다"면 2점, "신뢰하는 편이다"면 3점, "매우 신뢰한다"면 4점으로 전환한 후 평균한 값임.



### 13. 2003년 배우자 자원봉사활동 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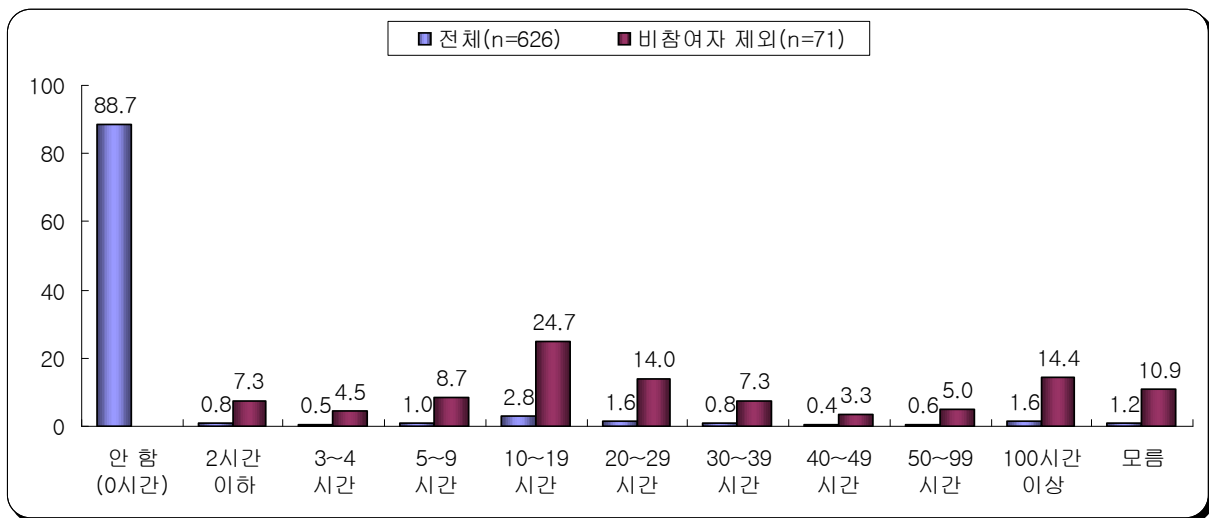
문) 귀하께서는 귀하의 배우자 분(남편 또는 부인)께서 작년 한 해(2003년 1월~12월) [보기카드 1의 '1번~14번'과 같은 곳에서] 자원봉사활동을 총 얼마나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?  
문) 귀하의 배우자 분(남편 또는 부인)께서는 작년 한 해 자원봉사활동을 총 얼마나 하셨습니까? [보기카드 1]에서 '15번 종교기관(교회/성당/절 등)을 위한 봉사활동'은 자원봉사활동에 포함되지 않으니, 제외하고 말씀해주시오.

- 기혼인 응답자 626명의 2003년 배우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인지율은 74.8%로 나타남(n=626).



<그림> 배우자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지 여부

- ◎ 626명 응답자의 배우자 중 2003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 11.3%(71명)이었음(참여 안 함 : 88.7%).
- ◎ 참여한 경우 '10~19시간'(24.7%)이 가장 높았고, '100시간 이상'(14.4%), '20~29시간'(14.0%)의 순으로 뒤를 이었음.
- ◎ 한편, 배우자 전체의 평균(n=626)은 "4.96시간"으로, 참여한 배우자의 평균(n=71)은 "48.43시간"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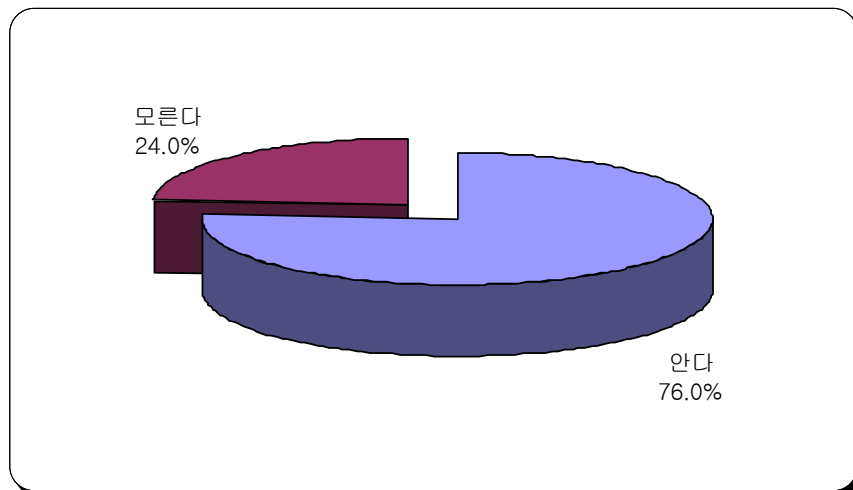


<그림> 배우자 자원봉사활동 시간

## 14. 2003년 배우자 기부 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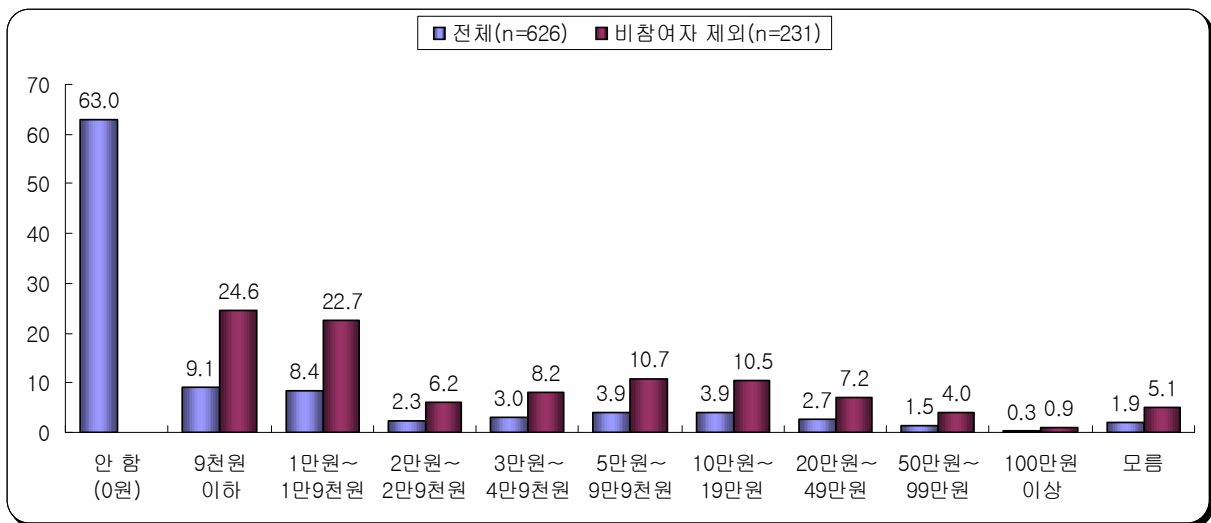
문) 귀하께서는 귀하의 배우자 분(남편 또는 부인)께서 작년 한 해(2003년 1월~12월) [보기카드 2의 '1번~14번'과 같은 곳에서] 기부를 총 얼마나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?  
문) 귀하의 배우자 분(남편 또는 부인)께서는 작년 한 해 기부를 총 얼마나 하셨습니까? [보기카드 2]에서 '15번 종교기관(교회/성당/절 등)을 위한 순수헌금'은 기부에 포함되지 않으니, 제외하고 말씀해주시오.

- 기혼인 응답자의 2003년 배우자의 기부 금액에 대한 인지율은 76.0%였음 (n=626).



<그림> 배우자 기부 금액 인지 여부

- ◎ 626명 응답자의 배우자 중 2003년 기부에 참여한 비율 37.0%(231명)이었음 (참여 안 함 : 63.0%).
- ◎ 참여한 경우 '9천원 이하'(24.6%)가 가장 높았고, '1만원~1만9천원'(22.7%)이 두 번째로 높았음.
- ◎ 한편, 배우자 전체의 평균(n=626)은 "3만1천원"으로, 참여한 배우자의 평균(n=231)은 "8만7천원"으로 나타남.



<그림> 배우자 기부 금액